

부산지역 고지도 연구

김 기 혁
(부산대 교수)

目 次

- I. 머리말
- II. 군현진지도
 - 1. 지도첩 중 군현지도
 - 2. 단일 군현진지도
 - 3. 지리지 중 부도
- III. 대축적지도 및 주제도 중 부분도
 - 1. 전국 대축적 지도첩 중 부분도
 - 2. 주제도 중 일부도
- IV. 회화식 지도
 - 1. 역사기록도
 - 2. 회 화
 - 3. 산수도
- V. 맺음말

I. 머리말

지도는 인간 내부의 정신적 공간세계와 외부의 물리적 공간세계의 매개체이며, 다양한 규모의 공간에서 인간의 공간 감각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도구이다. 지도는 그림으로서 문자 언어나 숫자보다 앞선 의사소통 수단으로, 제작 당시의 과학·기술·예술 등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로서 문화적·사회경제적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고지도 역시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된 과학과 문화의 산물이다. 특히 국가 단위로 조직된 조직체는 지도를 통해 영역 확보를 확인함에 따라 지도는 국가권력의 이념을 투영하면서 제작된다. 따라서 고지도는 제작 당시의 역사공간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써 당시의 생활 공간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당시의 인지공간(mental space)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大東輿地圖》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고지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수집, 체계화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규장각이나 박물관, 개인 소장자료를 집성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제작방법, 배경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 지방단위의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

고지도 연구가 지방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집권화된 국토의 공간구조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개념인 지역을 전제로 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은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속에서 생성·발전·소멸된다. 지역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시기부터 점차 일정한 특성을 지닌 지리적 단위와 역사·문화적 단위로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문화적, 사상적 독자성을 가지는 단위로 형성되면서 오늘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역은 또한 역사 시대마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영역이면서, 중앙 정치권력과 지배세력의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곳이기

도 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단위의 고지도 연구는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는 고지도 연구가 아름다움과 지도 제작 기술 수준에 대한 감탄과 감상의 수준을 넘어 지역연구의 자료로서 실질적인 측면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1992년에 定都 600년을 기념하여 고지도가 집중적으로 체계화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여 서울의 옛 지도가 단일 지도첩으로 발행되었다. 전남 지방을 대상으로 옛지도가 집성되기도 하였고, 공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방 단위의 고지도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지도가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대부분 서울 소재 기관에 소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고지도는 대부분 중앙에서 국가 방위, 통치 차원을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지리지나 읍지를 편찬하면서 삽입도로 그려졌다. 그 외에 역사적인 사실을 회화로 그리거나 외국 사절단에 포함된 화공에 의해 그려지기도 하고, 《大東輿地圖》와 같은 대축적지도에서 부분적으로 표현된다.

부산의 옛지도의 경우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8세기 이후 발행된 지도이고 조선전기에 발행된 지도는 신속주가 일본 사신으로 가면서 그린 부산포도가 유일하다. 서울에 비하여 독립적으로 그려진 지도는 많지 않으나 일본과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지도와 그림도 많다. 이들 고지도들은 전국에 산재하여 소장되어 있고,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화가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함방전인 1910년 이전에 현재 부산광역시 행정구역내의 지역을 그린 고지도에 대한 소개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부산의 고지도에는 동래부와 기장현을 그린 군현지도와, 좌수영, 산성지도 등 진영지도, 목장지도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주제도가 있다. 또한 회화식으로 그려진, 순절도 등 역사사실을 기록한 상세한

그림이 전해오고 있고 역사 기록도외에도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그린 회화식 지도와 진경산수화도 남아있다. 이외에 전국 대축적지도 중 《東輿備攷》, 《靑邱圖》, 《東輿圖》, 《大東輿地圖》에 부산지역이 비교적 상세히 그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한편 부산의 행정구역이 조선시대 김해와 양산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들 지역이 대개가 김해·양산의 고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97 종의 고지도가 확인되었으며, 지도의 내용과 제작방법, 제작 연대 등을 바탕으로 이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고지도 분류는 일반적으로 축척(대·중·소 축적지도), 판종(필사본, 목판본, 동판인쇄), 채색(채색지도, 단색지도), 제작과정(실측지도, 편집지도), 제작자(관찬지도, 민간지도), 제작목적(일반지도, 군사지도, 행정지도, 특수지도), 형태적 측면(단독지도, 지도첩, 일반지지, 삽도)으로 이루어진다. 부산의 고지도에 대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기존의 기준과는 상이한 분류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는 부산지역의 고지도가 위의 분류처럼 행하기에는 지도의 종수가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체계적으로 제작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로 군현진지도, 대축적 지도중 부분도, 회화식 지도,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지도, 분류 불능 지도로 분류한 후 <표-1>과 같이 2차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로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지도(20종)와 분류 불가능한 지도(6종)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빌려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제외한 총 71종의 내용 분석을 한 후 동래부 군현을 독립적으로 그린 지도를 유형화하여 군현지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시기 하한선의 기준을 1910년으로 잡은 것은 이 시기 이후의 지도가 부산의 근대적인 변화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나 제작목적 및 방법에서 이전의 지도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1〉 부산 지역 고지도 분류

1 차 분 류	2 차 분 류	지 도 종 수
군현진지도	지도첩 중 군현지도	14
	단일 군현진지도	13
	지리지 중 부도	12
대축적지도 중 부분도	전국 대축적 지도첩 중 부분도	9
	주제도 중 일부도	4
회화식 지도	역사기록도	5
	회 화	5
	산수도	9
일본인지도	부 도	10
	측량도	10
분류불능		6
계		97

Ⅱ. 군현진지도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땅의 근본적인 이치를 밝히려는 지리학의 이념적 측면 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통치적·군사적·경제적 목적에 의해 현실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제작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군현지도는 民의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국가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따라서 군현지도의 구성과 내용은 군사·경제·행정·교통·통신·교육과 의례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통치 이념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되었다.

군현지도가 학문적 목적보다는 행정과 지방 통치 목적에 의해 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문자로 기록된 지리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재현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지도의 내용은 지리지의 항목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군현지도는 지리지와의 관련성을 볼 때 크게 세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 유형은 한 장의 지도에 그림과 지리지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둘째 유형은 그림만으로 그려진 지도, 셋째 유형은 지리지의 부도로서 그려진 것이다.

1. 지도첩 중 군현지도

이 유형의 고지도는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를 집대성한 지도첩에 수록된 지도이다. 대부분의 지도는 한 장의 지도에 그림과 지리지를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그림의 부록으로 지리지가 기록된다. 즉 지도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한 지역의 전체 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海東地圖》와 규장각 소장 《嶺南地圖》(이하 《備邊司地圖》), 영남대 소장 《嶺南地圖》(이하 《嶺南地圖》), 《廣輿圖》등이 이에 해당된다.(〈표-2〉 참조)

〈표-2〉 군현지도첩 중 부산지역 고지도

	지 도 명	제작연대	규 격(cm) (세로×가로)	원본 소장처
1	《海東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1767 전후	47.5×30	규 장 각
2	《備邊司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1767 전후	36.3×22.2	규 장 각
3	《嶺南地圖(嶺南大村)》 중 〈東萊府〉 〈機張縣〉	1767 이후	25.4×19.3	영남대학교박물관
4	《地乘》 중 〈東萊府〉·〈機張縣〉	조선 후기	27.0×19.0	규 장 각
5	《各邑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조선 후기	29.2×19.2	국립중앙도서관
6	《廣輿圖》 중 〈東萊府〉·〈機張縣〉	19세기초엽	36.6×28.6	규 장 각
7	《小華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조선 후기	26.5×17.1	간송미술관

1) 《海東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1750년대 초 제작된 《海東地圖》에 수록된 군현지도이다. 《海東地圖》는 370종의 지도를 8첩에 수록한 관찬 회화식 군현지도집으로 세로 47.5cm, 가로 30cm의 지도책에 일정한 규격의 지도들이 그려진 '비경위선 표식 군현지도집'이다. 조선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천하도〉), 외국지도(〈중국도〉, 〈황성도〉, 〈북경궁궐도〉, 〈왜국지도〉, 〈유구지도〉), 관방지도(〈요계관방도〉) 등이 망라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 지도집으로 제8책의 《팔도총도》와 제 4책의 《서북피아양계전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도들은 도지도, 도별 군현지도, 도내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海東地圖》는 당시까지 제작된 모든 회화식 지도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도를 중심으로 지리지를 결합한 측면이 강하며 홍문관이 주도하여 《輿地圖書》로 마무리되는 정책자료 편찬의 출발점이 된 지도첩이라는 의미가 있다.

주기를 지도 이면에 기록하지 않고 지도 여백에 기록함으로서 지리적인 내용을 지도와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 파악이 한 면에서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든 체제이다. 전체 지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색과 산지의 표현 등 지도를 그린 기법, 주기의 내용, 형식들이 도별로 상이함을 볼 때 도별로 작성된 원본을 일차 정서한 지도로 보인다. 각 군현지도에 기록된 호구는 1740년대의 자료로 추정된다. 경상도 안음현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안음현의 혁파(1728-1735)와 관련이 있다. 이 지도첩이 현재 모습의 책으로 엮어진 것은 《備邊司地圖》가 편찬된 이후 1747년에서 1750년 이후라고 추정되며 18세기 전반의 지역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동래부 지도(〈지도 1〉)에서는 약 116개의 지명이 나타나며, 전체구성 중 산줄기의 표현은 계명봉부터 시작하여 세 줄기로 표현되고 있다.

서쪽으로는 금정산성을 거쳐 다대포에 이르는 줄기, 동쪽 산줄기는 해운대 장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래 읍치의 산줄기는 계명산에서 남하하여 진산인 윤산을 경유하여 鞍峴으로부터 다시 청룡, 백호 줄기가 묘사되어 있다. 물줄기는 범어사로부터 남류하다가 府의 서쪽에서 읍치 앞을 지나 흐르다가 수영천과 합류하여 수영만으로 유입하고 있다. 남쪽에 있는 배산이 안산 역할을 하여 명당 형국으로 묘사되어 있다. 동래 읍성의 성곽 표현은 생략되어 있어, 이는 1732년의 시작된 동래읍성 개축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성내에는 객사, 아사, 식파루, 석빙고와 향교 등이 표시되어 있다. 충렬사가 성밖에 있으나 농주산에 충렬별사가 표시되어 있어 1742년 농주산 전망제단을 이곳으로 옮기기 전의 내용이다. 읍성 성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금정산성, 좌수영성, 부산진성의 경우 성곽이 표현된다. 금정산성에는 중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1702년 금정산성 개축) 장대, 공해, 국청사, 해월사의 지명이 표현되어 있다. 좌수영성과 부산진성에는 동래읍치로부터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왜관이 그려져 있고 부근에 연향청과 設門이 묘사되어 있다. 이외에 고읍성이 배산과 황령산 중간에 표시되어 현재 육군통합병원 자리임을 보여준다. 오해야항의 위치가 현 대티고개 부근에 표현되어 있다. 부산 고지도에서는 오해야항이 석포쪽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현 대티고개쪽에 그려져 있는 경우가 나타나나, 정확한 위치는 후자인 것으로 사료된다(후술 《牧場地圖》참조) 주기에는 동래부 읍성의 크기, 호구수, 인구수 등과 곡물, 각 면의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장현 지도는 동래부의 지도에 비해 많은 소하천들이 발원하여 해안으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산이 많은 군현임을 표현하고 있다. 진산인 탄산이 읍성의 서쪽에 표현되어 있으며 성내외를 에워싸며 흐르다가 청천강으로 유입되는 형국으로 묘사된다. 성곽내에 객사와 아사가 표시되어 있으며, 읍성 동쪽에 古豆毛浦鎭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진은 1510년(중종 5)에 이 곳에 석성을 쌓고, 수군 만호가 주재하였으나 1592년(선조 25)에 동래로 옮겨갔다. 읍치 북쪽에는 678년(신라

문무왕 18) 원효대사가 창건한 장안사가 나타난다. 다른 군현지도와 달리 기장현 지도에는 각 도로가 大路·中路·小路·衢路 등으로 나누어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면리, 봉산, 기우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읍치 아래쪽에는 (南山)烽燧와 駕鵞臺(侍郎臺)가 있다.

2) 《備邊司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備邊司地圖》 중 《嶺南地圖》는 영조대에 만든 경상도 각 군현지도이다. 각 군현을 1장씩 그려 전체를 6첩으로 묶었으며 동래는 제2첩에 포함되어 있다. 비변사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1767년(영조 43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읍치, 면, 하천, 산, 봉수, 봉수로, 역, 진, 참, 서원, 절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백에 호구수, 경지면적, 곡물, 읍치 및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등의 지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산천 표현을 보면 산을 연속적인 줄기로 그리지 않고 독립적인 산으로 그려 넣었다. 읍치와 면이름을 사각형 내부에 기입하였는데 읍치는 내부의 공간구조를 그리지 않고 단순히 글자로만 표기하였다. 이는 지도상의 전 지역에 동일한 축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읍의 중심지와 그 안에 배치된 시설만을 확대하여 그릴 수 없는데서 기인한다.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일반 지도에 비해 매우 자세한 편으로 이는 도로를 중시했던 영조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동래부 지도에는 약 85개의 지명이 나타나며 특히 감포, 축산포, 칠포, 포이포 등과 부산진, 서평진, 다대포진 등의 여러 진영과 포구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海東地圖》에 비하여 동강의 유로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향교는 동래 읍성 동쪽에 그려져 있으며 충렬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정산성은 중문이 그려져 있고 내부 건물로서 해일사와 청국사, 공해 등이 표현되고 있다.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등은 회화적인 수법을 가미하여 표현되었으며, 대마도는

지도의 우측 하단에 있다. 지도 여백에는 동래부의 距京里數, 사방 경계, 군현 내 각 지역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장현의 경우 읍치와 함께 해안지역에 시랑대, 선창, 남산봉수, 봉산, 두도포, 기포, 사찰로는 선여사, 안적사, 장안사, 취정사, 역으로 신명역이 나타난다. 남산봉수는 阿爾봉수와 동래부 간비오 봉수와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산 지명에서 封山이 6개나 나타난다. 봉산은 나라에서 쓸 재목을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한 구역이다.

3)《嶺南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嶺南地圖》는 지도의 표현양식과 내용 등이 《備邊司地圖》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備邊司地圖》가 1리 방안에 그린 대축척지도의 군현지도로 휴대와 열람에 불편이 따르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기가 작은 책자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備邊司地圖》가 군현 면적에 따라 도폭의 크기가 다르지만 본 지도는 모든 군현의 지도 크기가 동일하여 면적 차이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 지도의 뒷면에 한양까지의 거리, 사방 경계, 군현내 각 지역의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備邊司地圖》의 내용을 전사한 것이다. 또한 앞의 지도에 기재되었던 지리적 내용은 지도의 뒷면에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지도는 《備邊司地圖》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천 또한 《備邊司地圖》와 같이 독립적인 개개의 산으로 표현하였으나 일부 산은 줄기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천과 바다는 청색으로 채색하였다. 읍치와 주변의 면을 황색 사각형 내부에 기입하였는데 읍치는 내부의 공간구조를 그리지 않고 단순히 글자로만 표기하였다. 도로는 크기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는데 대로는 홍선, 중로는 황선, 소로는 청선으로 구분하였다.

동래부(〈지도 2〉)의 산천은 계명봉에서 금정산, 기대치에 이르는 산

이 줄기로 표현되며, 읍치의 경우 진산인 윤산과 마안산(미기재)을 중심으로 청룡, 백호 맥을 산줄기로 표현하고 있다. 향교가 《備邊司地圖》와는 달리 성안에 그려져 있다. 충렬사가 표현되어 있어 《備邊司地圖》보다 후대의 지도로 추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명은 《備邊司地圖》에 비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특히 절영도의 경우보다 정확하게 그려지고 조도, 태종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지도의 특징은 봉수가 연결되는 망을 직선의 홍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안의 응봉·구봉·황령산·간비오 봉수가 내륙의 계명 봉수로 연결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지도의 동쪽 아래에 대마도 지명은 기재하였으나 섬은 묘사되고 있지 않다.

기장현 지도에서 산천의 표현방법은 《備邊司地圖》와 거의 유사하나, 도로망 표시는 읍치로부터 북쪽으로 울산으로 통하는 도로와 해운대·동래로 이어지는 도로가 표현되어 있다. 지명은 임랑포·기포·항곶포·월내포·화사포의 지명이 나타나 더욱 정밀한 묘사를 보이고 있다. 두모포와 함께 왜성이 나타난다.

4) 《地乘》 중 〈東萊府〉·〈機張縣〉

조선 후기(연대 미상)에 제작된 《地乘》에 수록된 군현도이다. 《地乘》은 전국 각도 군현에 대한 지도와 이면에 각 지방의 형세를 수록한 지리서이다. 총 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래부도는 그 중 제3책에 수록되어 있다. 앞부분에 경상도 내력과 토산물, 특성이 서술되고 경상도의 총도와 뒷면에는 元戶數, 인구수, 전답결수와 그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통영지도에 이어 군현지도 총 72매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지도의 이면에는 지리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동래부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태종대와 금정산성의 묘사방법, 수영성 부근의 포구 지명의 기록 방법, 동래 읍성의 성곽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 읍성내에 기재된 관아 건물의 이름 등이 《海東地圖》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두 지도의 제작 과정에 연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海東地圖》보다는 표현 방법이 다소 투박하고 지명도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海東地圖》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5) 《各邑地圖》 중 〈東萊府〉·〈機張縣〉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各邑地圖》에 수록되어 있는 군현도이다. 이 지도첩은 총 119장으로 되어 있으며 발행연도가 명확하지 않다. 지도의 전체 윤곽과 面 표시방법, 섬 지명에서 木島와 只森島가 나타나 《嶺南地圖》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낙동강의 표현에서 낙동 하류로 기재되어 있고 동래 기찰이 《嶺南地圖》와 동일한 위치에(《海東地圖》에는 현 위치에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嶺南地圖》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嶺南地圖》와는 달리 대마도는 섬의 윤곽과 함께 지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봉수대 및 도로 표시는 생략되어 있다.

6) 《廣輿圖》 중 〈東萊府〉·〈機張縣〉

《廣輿圖》는 18세기 전반기의 사정을 그린 것으로 세계지도, 외국지도, 요계관방도, 조선전도 뒤로 각 도별지도 아래 군현지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총 7책으로 동래부 지도는 제 4책(경상좌도)에 수록되어 있다. 제 2책 전면에 수록된 충청도 지도인 〈湖西圖〉에 魯城이라는 군현명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도첩 편찬 시점의 하한선이 1800년임을 보여준다. 이 지도첩의 전체 구성은 《海東地圖》와 유사하나, 安陰縣이 수록되어 있는 것, 마테오리치의 〈산해여지전도〉 계열의 지도가 〈천하도〉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 점 등은 《海東地圖》와 다른 양상이다. 《海東地圖》에서 한면에 지지내용과 지도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지도와 설명문이 분리되어 있다. 도면과 별도로 쓰여진 설명

문에는 호구, 전결, 부세, 군정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알려주는 항목들이 설명되고 있다.

이 지도첩은 《海東地圖》와 유사한 18세기 군현지도집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집이다. 영조대 중반부터 계속되던 官撰 회화식 전국 군현지도집 편찬의 전통은 19세기에 단절되면서 영조대 말부터는 기호식 지도집 편찬의 흐름이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가 합리적인 윤곽을 가진 기호식 지도집을 편찬해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의 회화식 관찬 군현지도집은 정책 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19세기의 정치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 민간에 유출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동래부 지도의 윤곽은 《海東地圖》와 유사하나 표현 방법과 지명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이 줄기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면 표시가 사각형안에 기재되어 있는 등 표현방법은 오히려 《嶺南地圖》와 거의 유사하다. 고을의 鎭山인 輪山이 읍치 뒤쪽에 기재되어 있다. 해안에 鎭이 표시되어 서쪽으로부터 다대진, 서평진, 두모포진, 개운포진, 부산진, 포이진, 칠포진, 축산진, 감포진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기장현은 서쪽 산지로부터 작은 하천들이 동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다만 읍치 왼쪽의 상서면, 하서면 지역의 물줄기가 동래수영강으로 흘러감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못하다. 동해안에는 여러 浦口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중 基浦는 기록에는 碁浦로 나와 있으며 검은 바둑알이 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한편 豆毛浦에는 원래 水軍萬戶가 파견된 鎭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1592년(선조 25)에 동래로 옮겼다. 그 옆에 있는 倭城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북상했다가 후퇴한 후 울산의 서생포에서 창원시 웅포 사이의 해안에 쌓아 마지막 교두보로 삼았던 왜성 중의 하나로 정유재란(1597) 때는 왜군 북상의 근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원래의 두모포진 자리에 쌓았으며 지금은 기장읍 죽성리에 사적 5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아래쪽의 기우제를 지내는 侍郎臺가 표기되었다. 나라에서 쓸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한

封山이 6곳에 표시되어 있다.

7) 《小華輿圖》의 〈東萊府〉·〈機張縣〉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小華輿圖》는 1匣5冊 총 338면으로 각 책을 木, 火, 土, 金, 水로 분류하여 제1책에는 경상도, 2책에는 전라도, 3책에는 경기도·충청도, 4책에는 황해도·평안도, 5책에는 강원도 함경도를 각각 수록, 전 팔도를 도별로 세밀하게 그려보였고, 각도의 권두에는 해당도의 전도를 싣고, 그 후에 그 도에 속하는 목·부·군·현의 각도를 수록하고 있다. 산세는 청색으로 濃淡을 곁들여 입체감있게 設彩하였으며, 주요 지명은 황, 적의 바탕위에 각각 표기하였고, 중요 건물과 유적들을 표현하고 있다.

2. 단일 군현진지도

이 유형의 지도는 그림만으로 그려진 지도로서 고종대 제작된 《郡縣地方地圖》가 대표적이다(〈표 3〉참조). 지리지적인 내용이 그림안에 간단하게 주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 《郡縣地方地圖》

《郡縣地方地圖》는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등의 사건이 발생되면서, 서양의 동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1871년 전국 각 군현의 읍지가 편찬되고, 1872년 지도의 제작으로 중앙에서 전국 각 지역의 군사시설 및 지역에 대한 파악의 일환으로 총 458종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 특히 海防이 강조된 지도로 鎭堡 등 군사시설의 지도를 별도의 지도로 작성하였다. 경상도 지도 104매 중 군현도가 50매이고 진보, 산성, 목장지도가 54매에 달한다. 회화적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지도의 내용이 《海東地圖》 못

지 않게 상세하다. 산과 하천, 고개, 왕릉, 사찰, 면, 역참, 장시 등 지역의 모습이 다른 어느 지도보다도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한편 군현지도와 동일한 내용의 지도가 《慶尙道地圖》(9帖 35×25cm 채색필사 규장각奎10512)로서 축소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 지도는 각 道마다 1871년(高宗 8) 列邑地圖 謄上書에 따라 1872년에 만들어진 지도가 낱장으로 있는데 비해 《慶尙道地圖》는 없으며, 이 지도의 표기양식이 다른 도의 지도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이 지도도 1872년에 만들어진 듯하다.

《郡縣地方地圖》중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제작된 지도는 11매로서 그 중 9매가 진지도이다. 이 중 좌수영·부산진·서평진·다대진·개운진·두모진 지도는 양식이 비슷할 뿐 아니라 동래부 지도를 확대한 느낌을 준다. 이들 진이 당시 좌수영에 속해 있던 것으로 보아 진지도들은 몇 사람에게 의해 함께 일괄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여진다.

〈표-3〉 단일 군현진지도 중 부산 고지도

번호	지 도 명	대 상 지 역	규 격	소 장 처
《郡縣地方地圖》				
1	〈東萊府地圖〉	부산시역중 기장군, 낙동강 이서지역 제외	121.9×72.5	규 장 각
2	〈機張地圖〉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	117.0×70.0	"
3	〈釜山鎮地圖〉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항 일대	108.0×71.0	"
4	〈慶尙左水營地圖形〉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동 일대	71.0×27.0	"
5	〈金井山城鎮地圖〉	부산광역시 금정산성 일대	121.0×72.0	"
6	〈豆毛鎮地圖〉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일대	117.0×72.0	"
7	〈開雲浦地圖〉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정공단 일대	67.2×48.5	"
8	〈加德鎮圖〉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동선동 일대	122.0×72.0	"
9	〈天城鎮圖〉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 일대	115.0×65.9	"
10	〈西平鎮地圖〉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일대	109.4×78.8	"
11	〈多大鎮地圖〉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침사진 일대	111.0×74.0	"
〈釜山 古地圖〉		동래부	150.0×70.0	동아대박물관
〈東萊 釜山古地圖〉		동래부	250.0×80.0	국립중앙도서관

(1) 〈東萊府地圖〉(〈지도 3〉)

다른 군현지도와 전체 구조는 대략 유사하나 내용이나 구체적인 기법들은 다르다. 산지는 산맥의 줄기를 강조하는 기법으로 표현하였는데 진산인 읍산에서 읍치로 내려오는 줄기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읍치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된 읍성의 크기가 매우 과장되어 자세하게 묘사된다. 익성과 웅성으로 이루어진 모습과 성을 둘러가면서 세워진 망루의 모습이 성내의 관아건물과 더불어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 성곽의 복원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읍성 이외에도 좌수영성, 부산진성, 대진성 등의 성곽과 관청 건물, 그리고 해안의 선박이 정박해 있는 곳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다. 절영도 근처에 왜관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아 設門을 만들었다. 지도에서도 守門과 함께 더불어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각 면에는 마을 명칭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기하였으며 중심마을에는 사창도 표시하였다. 읍치의 동편에는 충열사가 나타난다. 읍치와 구포, 부산진에는 장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읍성안에는 米廩도 표시된 점이 특이하다. 기타 봉수, 누정, 사창, 역원, 교량 등도 표시되어 있으며 읍치의 북쪽에는 溫井도 건물과 함께 그려져 있다. 동래부의 범위에 대한 간단한 주기가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함께 삽입되어 있다. 대마도가 묘사되어 있으며 「距釜山浦四百八十里」라는 간단한 주기가 기재되어 있다.

(2) 〈機張縣地圖〉(〈지도 4〉)

기장현지도는 회화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으며 산지는 바위, 수목 등을 세밀하게 그려 입체감있게 표현하였고 바다는 海波描를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지도의 중앙에는 현재 기장읍 동부리·서부리에 있었던 읍성이 그려져 있다. 읍성내에 객사, 동헌, 향청, 이사청, 사창이 표현되어 있다. 주변지역은 각 면과 소속 마을들이 표기되어 있으며 황색의 초옥으로 사창을 표시하였다. 읍치의 남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도로

를 홍선으로 그렸으며 중요한 지역에는 거리를 주기하였다. 군사적인 내용으로는 북쪽의 阿爾峰, 남쪽의 南山峰, 남쪽 해안의 舟師에 있는 전선이 그려져 있다. 해안의 형승으로는 시랑대, 삼성대, 황학대, 원앙대 등도 표시되어 있고, 남쪽에 두모포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射亭으로 쓰였던 읍성 남쪽의 관덕정이 표시되어 있고, 북쪽의 장안사, 남쪽의 안적사 등의 사찰도 그려져 있다.

(3) 〈釜山鎮地圖〉(〈지도 5〉)

조선후기 제작된 지도 중 부산포 주변의 지역이 가장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지도이다. 원래 부산진은 서쪽 정공단 부근의 開雲鎮이 들어선 곳에 있었다. 임진왜란시 부산진을 함락한 왜적은 이 곳에 주둔하면서 동쪽에 부산진의 지성을 축성하였다. 일본식으로 축성한 대포적인 왜성으로 1597년 고니시(少西行長)가 일시 주둔하기도 하였고 명나라 장수 萬世德이 진주한 적도 있어서 일명 고니시성 혹은 만공대라고도 부른다. 성 광내에 기재된 만공단은 명장 만세덕을 추모하는 제단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자성대를 중심으로 이 성을 쌓고 관아를 정비하여 부산진 僉使營으로 사용하였던 곳이다. 부산진의 성곽은 남문보다는 서문이 정문의 역할을 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도에서도 서문밖에 杜倉, 場市가 기재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공단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왜란시 전사한 鄭撥 장군을 제사 지내던 곳이다. 성내에 釜倉, 客舍, 衙舍가 그려져 있다. 성밖에는 1614년(광해군 6)에 순찰사 權盼이 전선 보관을 위하여 선창을 만들면서 파낸 토사로 언덕을 만들어 세운 영가대가 그려져 있다. 船倉에는 배들이 회화식으로 나타나고 倭船 船倉은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다. 서문과 북문을 중심으로 각 도로가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마을로는 전포·연동·우암·감만·용당이 기재되어 있으며, 태종대가 독립된 섬으로 그려진 것이 특이하다. 남쪽의 두모포, 왜관의

모습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대마도는 불완전하게 표현함으로써 원거리임을 나타낸다.

(4) 〈慶尙左水營 營址圖形〉(〈지도-6〉)

수군 절도사영인 경상좌수영을 그린 지도이다. 좌수영은 최초 동래의 부산포에 설치되었으나 이후 울산의 개운포로 이설하였다가 1592년(선조 25) 동래부 남촌으로 옮겼다. 또한 인조때 戡蠻夷浦로 옮겼다가 1652년(효종 3)에 다시 이곳으로 이설하고 1670년(현종 11) 항구를 돌로 쌓아 재정비 하였다. 지도는 이러한 수영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성곽을 비롯하여 주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辛坐乙向으로 진영의 좌향이 표기 되어 있는데 대략 동서방향에 해당된다. 성곽은 9,190척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인데 내부에는 객사를 비롯한 관아 건물과 수군절도사 다음의 관직인 정4품 虞侯가 머물던 虞侯營이 별도로 그려져 있다. 성곽은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객사 등의 건물이 표현되어 있다. 강변에는 선창을 비롯하여 전선 4척과 정탐선 1척이 그려져 있는데 虞侯의 선창도 별도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쪽의 海門 근처에는 1592년(선조25) 長鬐에서 옮겨온 包伊鎭 선창의 모습이 보인다. 동서남북 각 4면을 기점으로 도로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지도의 서편에 대마도가 나타나며 거리가 주기되어 있다.

(5) 〈金井山城鎮地圖〉(〈지도-7〉)

종9품의 別將이 관할하던 산성으로 1703년(숙종 29)에 시축하고 이후 몇 차례 개축하였다. 성 주위가 60,908척이나 되는 대규모의 산성으로서 부산 동남해안에서 상륙하는 왜적을 차단하고자 했던 주요 관방이었다. 이곳에 산성을 축조하자는 논의는 임란, 호란을 겪으면서 국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여러차례 대두되었으나 1701년(숙종 27) 경상 감사 조태동의 청에 의해 비로소 축성하게 되었다. 성의 남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성 내부는 비교적 넓은 분지 지형을 하고 있어 산성으로서는 천혜의 방어조건을 지니고 있다.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성안에 중리, 공해리, 죽전리 등의 취락도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찰로 국청사, 정수사, 미륵암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산성 방어에 승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金井鎭의 관아건물과 더불어 내성에는 종이를 만들던 紙所도 그려진 점이 특이하다. 또한 진영의 남쪽에는 案山을 그렸는데 진영을 배치할 때 풍수적인 관념도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곽에는 동문·서문·남문·북문과 함께 9개의 망대와 2개의 수문이, 중성에는 2개의 망대와 石門이 그려져 있다.

(6) 〈頭毛鎭地圖〉

지도에서 묘사 범위는 앞의 〈釜山鎭地圖〉와 유사하나 이 지도에서는 두모진과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두모진은 지금의 수정동에 있던 만호진이었으며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기장의 두모포에 있었는데 왜란후 부산의 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좌도의 수군을 부산지역으로 집결시킬때인 1629년(인조7)에 부산포로 옮겨 왔다. 그 당시 두모진의 위치는 현재의 동구 좌천동 해안이었다. 지도에서 보이는 두모진은 원래 왜관이 있었던 곳이다. 1678년(숙종4)에 왜관을 남쪽의 절영도 부근 해안가로 옮기게 되자 2년 뒤에 부산진 근처에 있던 두모진을 구왜관이 있던 지금의 장소로 이설하였다.

이 지도에서는 절영도의 모습이 〈釜山鎭地圖〉와는 반대로 북을 향하여 그려져 있다. 두모진 가까이 취락이 묘사되어 있고 舊倭船倉이 표현되어 있다. 초량왜관에는 동관, 서관이 그려져 있으며, 인근에 연대청, 객사와 함께 성과 設門이 그려져 있다. 대마도의 표현은 부산진 지도와 유사하며 「水路四百八十里」의 주기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開雲浦地圖〉와 형상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두모진 지역도 인근의

개운진, 부산진 등지와 동일한 비율로 그렸기 때문에 매우 소략하다. 왜관이 위치한 곳에 뿔감을 제공했던 柴炭所, 절영도에 목장의 말을 몰아가두었던 驅馬所, 두모진 위쪽의 赤松亭, 倭塚碑 등이 추가된 정도이다.

(7) 《開雲鎮地圖》

현재 동구 좌천동 정공단 부근에 있던 개운진을 그린 지도이다. 진의 수장으로는 무관 종4품의 萬戶를 두었으며 1592년(선조25)에 울산에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지도는 개운진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근의 부산진, 두모진, 왜관까지 같이 그려 개운진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북쪽으로는 부산진의 옛터가 있으며 그 옆에는 임진왜란때 부산진성에서 전사한 정발장군을 위한 제단이 그려져 있다. 개운진을 비롯하여 당사 동래부 소속의 진보였던 부산진, 다대진, 두모진, 서평진과 좌수영 지도는 동래부 지도와 표현양식이 동일하다. 특히 각 진보의 지도는 동래부 지도를 토대로 해당지역을 확대하여 그린 정도인데 동래부 지도를 제작할 때 소속 진보의 지도도 동일한 제작자가 일괄적으로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하단에는 왜관도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1709년(숙종 35)에 부사 權以鎭이 왜인들의 출입통제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설문과 석성, 연회를 베풀던 연대청, 일본 사신이 진상물을 바칠 때 肅拜하던 객사 등도 묘사되어 있다.

(8) 〈加德鎮圖〉(〈지도-8〉)

강서구 가덕도의 동선동 일대에 있었던 가덕진을 그린 지도로서 조선시대 이 지역을 묘사한 가장 자세한 지도이다. 1546년(명종 1)에 진을 설치하였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때 성이 왜군에게 함락한 후 安骨城으로 옮겼다. 이후 1656년(효종 7) 통제사 柳燐然의 상계로 가덕도로 돌아왔다. 지도 제작 당시에는 수군 첨사진으로 성곽의 내부에는 客舍, 衙舍, 좌청, 우청, 집사청, 통인청, 고청, 관청, 도제도

청, 사령청, 이청과 함께 射亭 등의 각종 관아 건물과 이 시기에 설치되는 포수청, 화포수청 등이 있고, 성밖에는 선환고, 화약고가, 해안의 선소인 禦變亭 부근에는 척사비도 그려져 있다.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그해 4월에 서울과 각지의 도회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던 기록이 실록에서 나타나, 이 지도에도 척화비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회가 아닌 중요 군사기지에도 이 비를 건립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해안의 선창에는 배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1871년의 《嶺南邑誌》에는 전선 2척, 병선 2척, 何侯船 4척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읍성의 동문 주변에는 민가를 밀집되게 그려 취락의 규모가 매우 큼을 표현하였고 외곽에 논밭의 배미를 그려 경지를 표시한 것이 특이하다. 주기에 통영, 거제, 천성진 등의 주변 지역과의 里程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대마도는 지도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9) 〈天城鎮圖〉

부산시 가덕도의 천성동 일대에 있었던 천성진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시대 웅천현에 속해 있었다. 1544년(중종 39)에 진을 설치하였는데 임진왜란때 왜적에게 함락된후 안골성으로 옮겼다가 1656년(효종7)에 다시 이곳으로 이설하여 수군 만호로 수비하게 하였다. 이 지도는 가덕진도와 표현 기법이 유사하여 같은 사람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천성진의 좌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까닭에 동쪽을 상단으로 잡아 그렸다. 천성진이 크게 확대되어 중앙에 그려져 있는데 성곽의 내부에는 각종 관아 건물이 상세하고 당시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포수청도 묘사되어 있다. 1871년 발행된 《嶺南邑誌》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하후선 2척이 있었던 기록이 있다. 전체적으로 산지는 조감도식으로 그려 봉우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수목까지도 그려져 있다. 지도의 상단에는 인근 지역까지 道里를 수록하여 지도를 보완하고 있다.

(10) 〈西平鎮圖〉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부근에 위치했던 서평진을 그린 지도이다. 만호진으로서 원래 동래부 치소 남쪽에 있었는데 1592년(선조 25)에 다대포에 합쳤다. 이후 원래 자리로 옮겼다가 다시 다대포로 옮긴 것이다. 지도는 다대진 지도와 모습과 내용이 비슷한데 단지 서평진 부분만을 덧붙였을 뿐이다. 서평진에는 亥坐巳向이라는 좌향 표시만 있을 뿐 매우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1871년의 《嶺南邑誌》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하후선 2척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多大鎮地圖〉(〈지도-9〉)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였던 다대진을 그린 지도이다. 僉使鎭이었던 다대진은 동래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진이다. 낙동강으로 침입하는 왜적의 첫 길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던 곳이다. 원래는 무관 종4품의 만호영이었으나 木島의 왜적을 물리친 공로가 인정되어 후에 정3품의 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 1654년(효종 5)에는 첨사가 목장의 감목관도 겸임하였다. 鎭基의 뒷산에 主山이라는 표시와 子坐午向이라는 좌향을 통해 당시 풍수적인 환경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객사 뒤편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 곳에서 전몰한 첨사 윤흥신을 제향하던 제단도 그려져 있다. 해안가에는 선창이 그려져 있는데 《嶺南邑誌》에는 전선 2척, 병선 2척, 하후선 4척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선창의 남쪽에는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놓은 南林이 그려져 있는데 선창을 보호하고 남쪽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남쪽 언저리 물운대 옆에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 밑에서 용맹을 떨친 鄭運 장군의 순의비도 보인다.

2) 〈釜山 古地圖〉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채색 회화식 지도이다. 전체 구성은

《郡縣地方地圖》의 <동래부지도>와 유사하나 산맥의 줄기를 매우 강하게 표현하였으며, 계명봉, 고단봉의 경우 산 봉우리를 날카롭게 표현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강하다. 산줄기를 정밀하게 표현하여 마치 조감도를 보는 듯 하며 그 사이의 분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도로나 하천 혹은 주요 지명에 읍치로부터 거리가 표시되어 있으며, 면 이름은 황색의 원안에 기재되어 있어 기존의 지도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인다. 성곽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동래읍성의 경우 사대문이 표시되어 있고, 좌수영성, 부산진성, 다대포성의 윤곽은 실제의 형태와 유사하다. 왜관과 연대청이 표현되어 있고, 해안에 축조된 항만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이 지도의 제작 연대를 가늠하게 하여 준다. 오른쪽 하단에 대마도의 원경이 거리와 함께 그려져 있다.

3) 〈東萊釜山古地圖〉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부 군현지도이다. 전체적인 구성과 성곽 표현방법, 기재된 지명, 지형 표현방법으로 볼 때 앞의 〈釜山古地圖〉와 거의 유사하여 두 지도의 제작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면 이름의 표현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부 지명에서 누락이 된 것이 발견되고 대마도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3. 지리지 중 부도

조선시대 발행된 읍지와 지리지 등에서는 附圖로서 첫머리에 각 군현의 채색지도가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동래부와 기장현 군현 지도가 첨부되어 있는 지리지로는 조선 전기의 《海東諸國記》와 후기에 발행된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嶺南邑誌》 및 《東萊府誌》, 《機張縣地理誌》 등이 있으며 내용은 주로 산천과 鎭堡, 營에 대한 내용만을 지도에 도시하였다. 지도화 하기 어려운 조세, 호구수 등은 제외된

다. 《輿地圖書》에는 지역의 전체상을 보여주면서 경제적인 요소를 강조하였고, 《慶尙道邑誌》에서는 군사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표-4〉 地理志 附圖의 釜山古地圖

	地 圖 名	제작연대	크 기	소 장 처
1	《海東諸國記》 중 〈東萊富山浦地圖〉	1474	33.8×22.2	규 장 각
2	《輿地圖書》 중 〈東萊府之地圖〉·〈機張縣之地圖〉·〈左水營之地圖〉	1760 전후	31.0×20.5	교회사연구소
3	《慶尙道邑誌》 중 〈東萊府〉·〈機張縣〉	1832	35.0×22.6	규 장 각
4	《嶺南邑誌(1)》 중 〈東萊府〉	1871	31.2×20.8	규 장 각
5	《嶺南邑誌(2)》 중 〈東萊府〉·〈機張縣〉	1894	31.2×20.8	규 장 각
6	《東萊營誌》	1849	24.7×16.8	국립중앙도서관
7	《東萊府邑志》 중 〈東萊府地圖〉	1899	32.9×22.1	규 장 각
8	《機張邑誌》 중 〈機張縣地圖〉	1899	38.0×27.0	규 장 각

1) 《海東諸國記》중 〈東萊富山浦地圖〉

이 지도는 신숙주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저술한 《海東諸國記》에 삽입된 지도 중의 하나로 부산을 묘사한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 지리지는 1471년(성종 2)에 저술한 책으로서 일본의 지세·국정·사신 왕래의 연혁 및 사신 관대 예접의 절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부산포도가 그려진 것은 1474년(성종 5) 3월 예조좌랑 남제가 삼포 왜호의 실화를 진휼할때, 왕명을 받아 몰래 3포의 지도를 묘사하고 또 恒居倭人の 호구를 조사한 결과로 만들어진 <熊川薺浦圖>, <東萊富山浦圖>, <蔚山鹽浦圖> 3매가 권두의 지도에 첨가 삽입되었다. 한 면에 부산진의 지도와 함께 三浦에서 京城까지의 육상 및 하천 교통로와 소요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왜관의 호구수가 기록되어 있다. 동래읍성은 동래관으로 기재되어 정방형의 성곽 형태로

묘사되며, 마비을이현, 왜관, 영청, 동평현와 함께 見江寺(현 선암사)가 나타난다. 《釜山府史原稿》의 선암사기에 따르면 “선암사의 처음 이름은 견강사였으며 처음에는 동평현의 성안에 있었으나 1400년(정종 2) 부산포의 동쪽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사찰의 표현이 다른 지명과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임을 보여준다.

2) 《輿地圖書》 중 〈東萊府〉·〈機張縣〉·〈左水營之地圖〉

《輿地圖書》는 1757년~1765년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만든 전국 읍지이다. 이 책이 읍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점은 각 읍의 첫머리에 각 읍별 채색지도가 부착되는 점이다. 여지도와 서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輿地圖書》라는 서명을 붙일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것이다. 즉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표현함에 따라 읍지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리지는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동래부와 기장현 및 좌수영에 대한 지리지의 앞에 채색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東萊府地圖〉에는 방위표시가 東西南北으로 표현되어 있고 산줄기의 표현은 동래지역은 계명봉으로부터 시작되어 운산을 거쳐 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정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맥은 남하하면서 한줄기는 황령산으로 갈라져 금정산의 朝山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대포로 남하한 산줄기는 물론대로 이어진다. 하천으로서 수영천과 동천이 그려지고 있다. 현재 수영천 본류는 蘇川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재송포는 수영강 하류부에 표시된다. 오해야항이 오류도쪽에 표현되고 있어 19세기 《大東輿地圖》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이 지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래 읍성의 성곽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향교가 성내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좌수영성·부산진성·다대포성 및 왜관

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대마도는 섬으로 표현되지 않고 위치만 묘사된다. 오륙도에는 섬이 6개가 그려져 있는데 《輿地圖書》에서는 지명의 기원이 〈自東觀之爲六峯 自西觀之爲五峯 故名其〉로 설명되고 있다.

<機張縣地圖>는 동래부 지도와 표현양식은 동일하나 산줄기가 매우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기재되는 지명으로 읍성과 향교 외의 지명은 長安寺, 驚井寺 등 사찰이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기장의 인지공간 형성에 사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읍성의 경우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성주위에 일정한 표시가 나타나나 해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左水營地圖>의 경우 전체 윤곽은 성곽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를 서쪽으로 배치하여 그린 점이 특이하다. 산줄기의 흐름은 황령산, 배산으로부터 이어져 전체 성곽을 둘러싸고 있으며 아래쪽에 鳥峯을 표현하여 풍수 형국으로 묘사하였다. 지도의 좌측에 將臺가 표현되어 있으며 수영천 입구에 선창이 그려져 있다

3) 《慶尙道邑誌》 중 〈東萊府〉·〈機張縣〉

이 지도는 19세기 중엽 경상도 각 읍지의 앞에 첨부되어 있는 채색 지도이다. 《慶尙道邑誌》는 71개 읍의 읍지로, 편찬년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호구·경지 통계 등을 통해 볼 때 1832년(순조 32)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의 저본은 1786년경에 편찬된 경상도의 각 군읍지로 여겨지며 《嶺南邑誌》의 내용을 전사한 제8책을 제외하고는 체제가 모두 통일되어 있다. 科擧·人物·宦蹟條가 신실, 증보되어 읍의 전통에 대한 파악이 《輿地圖書》보다 훨씬 상세할 뿐 만 아니라 지도 내용도 충실하게 그려져 있다.

<東萊府地圖>의 전체 윤곽은 다른 지도와는 달리 목판의 크기에 맞추어 동서가 남북보다 길게 되어 있는 점이 이 지도의 약점이다. 지

도의 표현방식을 보면 산은 맥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입체식으로 묘사되었으며, 바다도 海波描를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성곽을 강조하여 읍성·부산진성·다대포성·수영성이 과장되어 표현되며, 금정산성의 경우 산록을 따라 회화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반해 왜관은 산 위에 집한채로 간단하게 그려져 있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주요 지명은 앞의 성곽 외에 응봉·구봉·황령산·간비오 봉수만 기재되어 있어, 군사 방위적인 내용을 강조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외의 지명으로 성밖에 향교와 충렬사가 나타나며 사찰로는 和池寺만이 표현되어 있다. 이 화지사는 동래의 토성인 동래 정씨 정묘내에 있는 사찰로서 정묘의 劑宮寺이다. 제궁사는 묘지나 사당의 옆에 세워, 제사의 목적으로 지어진 절이다.

<機張縣地圖>에서도 표현 양식은 동래부 지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輿地圖書》에 비하여 훨씬 많은 지명이 기재되어 면 이름과 봉수, 산 지명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산 지명으로 불광산, 취봉산, 장안봉산, 백운산, 진산과 남산봉산에는 남산봉수가 기재되어 있다. 시랑대, 태정대, 용두대 등과 함께 해안에는 죽도가 있다. 그러나 읍성의 경우 위치만 간단히 표현된다.

4) 《嶺南邑誌》(1871) 중 〈東萊府〉

이 지도는 19세기 후반 발행된 《嶺南邑誌》에 수록된 군현도이다. 이 지리지는 1871년(고종 3)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에 의해 편찬·상송된 경상도의 각 읍지·역지·목장지·진지를 한데 모아 편찬한 경상도 도지와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경상도 각 읍에서 작성한 읍지를 의정부에서 합편한 책 2종류가 있다. 1871년의 읍지의 경우 내용은 1832년의 《慶尙道邑誌》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읍지 머리에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동래부 지도의 공간 구성은 《輿地圖書》의 그것과 유사하나 산맥의 표현과 지명의 기재에서 비교적 사

실적으로 표현된다. 낙동강 하안에 감동창과 구포가 나타나며, 왜관을 「日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오해야항이 오륙도 가까이 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輿地圖書》와 동일하다.

5) 《嶺南邑誌》(1894) 중 〈東萊府〉(1, 2) · 〈機張縣〉

1894년에 새로 실린 동래부 지도는 훨씬 강하고 거칠게 묘사된다. 동래읍성의 경우 웅성과 익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금정산성의 경우 중성이 표현된다. 남천, 석포, 분포 지명이 추가되며 해안지역의 묘사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앞의 읍지에 일본으로 표현되던 왜관은 이 지도에서는 다시 왜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장현(1894년 《嶺南邑誌》에서는 누락되어 있음)의 지도 묘사는 매우 강하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 면이름을 중심으로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읍성과 남산 봉수외에 기재된 대부분의 지명은 사찰이 대부분이다.

6) 《東萊營誌》 중 〈萊營地圖〉

이 지도는 1849~1850년에 좌수사로 재임하였던 李亨夏가 작성한 동래영지에 수록된 지도이다. 경상도 좌수영에 관한 營誌는 지리지나 사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동래영지는 별책으로 제작된 유일한 영지이다. 전체 1책 72장으로 되어 있으며 序에 앞서 본영을 중심으로 묘사된 지도이다. 좌수영성과 주변 지형을 그리고 있으며 배산 등의 표기 형식으로 보아 윤곽은 《輿地圖書》와 유사하다. 황령산 대신 금련산이 기재되어 있다. 성곽에서 웅성의 표현이 뚜렷하며, 성내에 객사, 동헌 등 6개의 관아 건물이 그려져 있다. 해운대, 간비오 봉수 등과 강안의 선창에 선박이 회화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7) 《東萊府邑志》 중 〈東萊府地圖〉

1899년(광무3) 제작된 동래부 읍지의 앞에 첨부된 채색지도이다.

이 지리지는 동시대의 전국 읍지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경상도 읍지중의 하나이다. 장시로 읍내장·좌수영장·부산장·독지장 등의 5 일장이 기록되어 있으며 성지, 군액, 관방, 진보 등에서 읍성, 금정산성, 좌수영성, 부산진성, 다대진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당시의 지역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사료이다. 지도의 표현방법은 동래읍성이 매우 과장되어 표현되며, 하천 및 산줄기의 묘사방법이 1872년의 전국적으로 제작된 《郡縣地方地圖》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郡縣地方地圖》에 비하여 지명은 훨씬 적게 기재되어 있다.

8) 《機張郡邑誌》 중 〈機張郡輿地圖〉

1899년(광무 3) 전국읍지 상송령에 의하여 기장군에서 만든 읍지 앞에 첨부된 채색지도이다. 읍지에 기재된 항목은 다른 읍지와 유사하며 경지면적은 무술(1898)년의 상황을 기재하고 있다. 다른 기장현의 지도와는 다르게 산줄기의 표현이 매우 부드러운 모습으로 묘사된다. 면이름은 지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안적사, 장안사 등의 사찰과 사직단 및 저수지인 박곡제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읍성의 묘사에서 성곽의 형태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邑基로만 기재되어 있다.

Ⅲ. 대축적지도 및 주제도 중 부분도

18세기 이전까지는 군현지도보다는 전국지도나 도별지도가 많았으나 일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축적지도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에는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 대축적 지도가 만들어지며, 앞에서 설명한 군현진지도들이 이에 속한다. 축적이 큰 지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도의 크기도 대형화되었고, 지도에 표시되는 내용이

상세하고 풍부해졌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지도의 민간 소유를 금했다고 하지만 사회가 안정되면서 민간에서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상기의 《東國地圖》에서는 백리척 등 축척이 표시되는 등 정확한 대축척지도의 제작과 함께 전국 지도첩이 만들어진다. 동래·기장지역이 상세하게 묘사된 대축척 지도첩은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東輿備考》와 김정호가 제작한 《靑邱圖》, 《東輿圖》, 《大東輿地圖》 등이 있다. 한편 조선 후기 군사용이나 목장 지도 등 국가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 관방도, 수로도, 진지도, 목장지도 등이 대축척으로 그려진다. 부산지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된 이들 지도는 〈표 5〉와 같다.

〈표-5〉大縮尺地圖 및 主題圖의 部分圖

		地 圖 名	年 代	크 기	所 藏 處
대축척 지도	1	《東輿備考》 중 東萊府, 機張縣 部分	1682경	47×35(1판)	영남대 박물관
	2	《靑邱圖》 중 東萊·機張 部分	1834	30.5×20(1판)	국립중앙도서관
	3	《東輿圖》 중 東萊·機張 部分	1834~'61	30.5×20(1판)	규 장 각
	4	《大東輿地圖》 중 東萊·機張部分	1861	30.5×20(1판)	규 장 각
	5	《大東全圖》 중 東萊·機張 部分	1861 이후	30.2×20.2	영남대학교박물관
	6	《慶尙道·全羅道地圖》中〈東萊地圖〉·〈機張縣地圖〉	19세기 중엽	48.7×31.3	고려대도서관
	7	《八道地圖》 중 〈海雲臺〉·〈倭館圖〉	정조년간	38.5×22.0	규 장 각
주제도	1	《牧場地圖》 중 〈東萊府牧場〉	1663년경	36×24	국립중앙도서관
	2	《慶尙左水營地圖》	미 상	339.8×48.4	규 장 각
	3	《嶺湖南沿海形便圖》	18세기후기	59.0×800.0	국립중앙도서관
	4	《高麗重要處圖》	1792	66.6×343.3	국립전주박물관

※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慶尙道·全羅道 地圖》중 〈東萊府〉·〈機張縣〉 지도와 규장각에 소장된 《八道地圖》 중 〈海雲臺〉·〈倭館圖〉는 구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소개는 제외되었다.

1. 전국 대축적 지도첩 중 부분도

1) 《東輿備攷》 중 東萊府・機張縣 部分

《東輿備攷》는 60여종의 지도를 한 책에 수록한 지도집으로서 지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일종의 도별도이며 동시에 군현도이다. 《東輿備攷》의 제목은 《東國輿地勝覽》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한다. 동여는 동국의 동자와 여지승람의 여지를 취하였고 비고라는 명칭은 《東國輿地勝覽》을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도책의 편찬시기는 그 내용으로 보아 1682년(숙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부분은 역사지도이고 그 뒤에 도성도 등의 특수 지역도가 있고 대부분은 도별도와 군현도로 되어 있다. 각 도별 총도 다음에 군현별 지도가 남부, 중부, 북부 등으로 나누어 각 군현별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작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으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앞서 그려진 대축적 지도라는 점에서 사료가치가 있으며, 당시의 지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군현의 묘사방법을 보면 각 군현의 명칭을 기재하고 붉은 선으로 둘러 읍치를 표시하였으며 강은 청색, 산맥은 녹색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로 표시는 없지만 각 역을 노란 원으로 그려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맥의 표현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으나 연속적으로 그려져 맥의 흐름을 보여준다.

동래부 일대를 보면 동래・기장・양산현을 중심으로 지역구조를 그렸으며, 성곽의 표현은 지명위에 원을 그림으로서 성을 표현하였다. 읍치의 옆에 역사를 나타내는 간단한 주기와 함께 경성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석포와 절영도에 목장 표시가 있으며, 봉수는 따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오해야항은 현재의 대티고개 부근에 그려져서 나타난다. 대마도는 부산과 매우 가깝게 그려져 있으며 母神山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기장의 기재 내용을 보면 기장옆에 甲火良谷 車城이라 하여 군현의 별칭을 신라시대때의 명칭과 별칭을 모두 병기하고 있다. 기장현의 읍

성은 석축으로 둘레는 3,197자이고 높이는 12자였다. 京九百七十二里는 한양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역으로는 신명역과 아월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읍치부터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滌署樓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객관의 동쪽에 있던 누정이다. 고읍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성은 현의 동북 5리에 있었으며 土築이고 둘레가 3,208자였다.

산으로는 고을의 진산으로 炭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읍치에서 2리 떨어져 있음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 佛光山의 경우 울산으로부터 거리가 45리 떨어져 있다고 표현되어 이 산을 경계로 울산과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의 산으로 雲峰山(機 十五), 백운산(機 四十), 南山(機 五)도 기재되어 있다. 남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봉수가 있었다. 이 봉수는 남쪽으로는 동래현 간비오산에, 북쪽으로는 울산군 임랑포에 응하였다. 포구로서 공수포·두모포·기포·가을포·동백포·이을포가 있다. 이 중 기포는 현의 남쪽 7리에 있으며 검정 바둑돌이 생산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두모포는 종종 5년에 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1,250척, 높이는 10자로 과거에 수군 만호를 두었다가 선조 25년에 동래로 옮겼다. 섬으로 죽도와 무지도가 나타난다. 죽도는 현의 남쪽 8리에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왜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무지도는 현의 남쪽 4리에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을포에는 魚梁이 있었다. 하천으로 絲川이 나타나는데 동래로부터 15리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래와의 경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處容巖, 水營, 掣鰲亭 등은 울산군에 포함된 지명이다.

2) 《靑邱圖》 중 東萊·機張 部分

《靑邱圖》는 김정호가 1834년 제작한 채색 필사본의 대축적 지도로, 상하 2책 혹은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가 편찬한 지리지인 《東輿圖志》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靑邱圖》는 《海東輿地圖》를 저본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구분하여 방안 눈금을 구획하였으며 방안 하나는 남북 100리,

동서 70리가 되도록 하였다. 지도의 내용을 보면 지형, 수계, 성곽, 창고, 역도, 봉수, 진도, 교량, 고개, 섬, 시장, 호구, 군명, 제언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지지사항을 포함한 지도책으로 각 읍의 여백을 이용하여 戶口, 田結, 軍丁을 기록하고 있다. 지도 축척은 약 16만분의 1로서 당시까지의 제작된 전국도로서는 가장 정밀한 것으로 평가되며 후에 제작되는 《大東輿地圖》의 바탕이 된다. 동래 기장지역은 22·23층의 6·7판에 그려져 있다.

지도의 내용을 보면 동래부와 기장현의 행정 경계가 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산은 맥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요한 산만 기재되어 있다. 산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군현지도에서 나타나는 회화식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래부를 중심으로 좌수영, 개운포진, 부산첨사, 두모진, 다대포첨사 등이 그려져 있으며 오해야항은 석포리쪽에 나타난다. 여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기로 표현하고 있으며 통계는 김정호가 1834년 편찬한 《東輿圖志》의 내용과 일치한다. 《靑邱圖》에서의 주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萊：田三千二百結 穀一萬二千二百石 軍五千 京九百六十里 壬辰

倭亂宋象賢死之

左水營：兵八千六百 穀四萬七千二百

釜山(僉)：穀一千石 兵五千

開雲(萬)：穀七百石 兵一千七百

豆毛(萬)：穀七百石 兵一千七百

多大(僉)：穀一千七百石 兵三千五百

西平(萬)：穀六百石 兵一千七百

包伊(萬)：穀五百 兵一千六百

絶影：外面絶險 中實土沃

五六島：峯巒削立列在海中 有天將萬世德碑

干非島：望對馬島最近

3) 《東輿圖》 중 東萊·機張 部分

《東輿圖》는 원래 《大東輿地圖》를 만든 후 필사한 지도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大東輿地圖》를 만들기 위해 저본으로 제작한 것이 확인되어 《靑邱圖》와 《大東輿地圖》 중간단계의 지도로 보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동래·기장은 20첩, 21첩에 그려져 있다. 산맥의 묘사에서 《靑邱圖》와는 달리 맥으로 표현되나 《大東輿地圖》에서처럼 ‘산악투영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靑邱圖》에서 기재되었던 주기는 생략되었다. 동래 부근의 산맥 표현에서 계명봉, 금정산으로 이어지는 맥 중의 하나는 윤산으로부터 동래로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기비현까지 이어져 한줄기는 금용산, 황령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줄기는 엄광산, 송현산으로부터 다대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郡縣鎮地圖에서 표현되는 산맥 인식체계와는 상이하다. 초량왜관이 《靑邱圖》와는 달리 석포쪽으로 기재되는 오류가 나타나며 이는 《大東輿地圖》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감동포(현재의 구포)도 새로 표현되나 위치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大東輿地圖》 중 東萊·機張部分

《大東輿地圖》는 김정호가 《靑邱圖》와 《東輿圖》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에 편리하도록 分帖折疊식으로 1861년 목판본으로 만든 전국 지도로서 일반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지도이다. 지도의 실제 크기는 세로 약 7m, 가로 약 3m로 상당히 자세한 대축척 지도이나 일반인에게는 보급된 지도는 <大東輿地全圖>이다.

1861년은 김정호가 대동지지를 저술한 해로서 《靑邱圖》에서 나타나는 지지적인 내용이 대동지지에 수록됨으로서 지도에서는 《靑邱圖》에서 기재되었던 지지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축척은 《靑邱圖》와 동일하여 약 16만분의 1로서 남북 22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을 점으

면 책자가 된다. 道路 表示線에 10리마다 점을 찍음으로써 실질적인 축척을 매 도면위에 나타내고 있어 지도 읽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동래·기장은 18, 19층에 그려져 있다. 산맥의 표현과 해안선은 《東輿圖》와 유사하나 하천은 비교적 축소되어 표현된다. 《東輿圖》와는 달리 동래부의 관할 구역이 점선으로 첨가되어 있다. 동래부의 내용에서 《靑邱圖》와 《東輿圖》에서 나타난 초량왜관, 동평현 및 오해야향 및 감동포에서의 오류는 수정되지 않고 있다. 이 오류의 원인은 군현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의 계보를 추적하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大東全圖》 중 東萊·機張部分

《大東全圖》는 목판본 《大東輿地圖》를 채색으로 模寫한 필사본 지도이다. 현존하는 《大東輿地圖》 印本들은 대다수가 채색한 형태로 남아 있고 이 지도처럼 필사본으로 모사하고 채색한 경우도 다수 있다. 필사본 《大東輿地圖》중에서도 이 지도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모사한 지도이다. 이러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지도 제작은 《大東輿地圖》 자체가 단지 지도로만 기능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교한 채색 사본을 제작하였던 것은 지도를 예술품으로 간주하여 감상의 대상으로 평가했던 전통을 계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지도는 채색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윤곽이나 묘사방법이 목판본 《大東輿地圖》들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도에서는 도로가 홍선으로 표현되나 이 지도에서는 흑선으로 표현되었다. 동래부의 묘사내용을 보면 《大東輿地圖》에 비하여 산맥의 표현이 좀더 안정감 있게 표현되고 있으며 일부의 오류도 수정된다. 감동포와 오해야향의 기재 오류는 계속 이어지나, 개운포와 초량왜관의 위치가 수정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2. 주제도 중 일부도

1) 〈慶尙左水營地圖〉중 동래부 해안

이 지도는 1帖(9折9面)으로 되어 있는 채색지도이다. 지명과 거리를 필사로 기재한 기문이 있으며 작자와 작성 연대는 미상이다. 수로 및 육로의 거리를 里數로 표시한 각 지명의 묘사 범위는 좌수영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으로 기장, 서생포, 울산의 병영까지, 남쪽으로 부산·개운·두모포·왜관·다대·서평포·가덕도까지, 서쪽으로 통영까지, 아울러 북쪽으로 동래까지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 비변사인이 찍혀 있다. 내용은 상단에 각 倉, 浦 및 통영까지의 거리가 밝혀져 있고 좌수영을 중심으로 주변의 병영, 구수영, 도, 산, 진, 참, 봉대, 성, 포가 기재되어 있다. 오륙도가 촛대 모양의 5개 섬으로 그려진 것이 특이하다.

2) 《牧場地圖》 중 〈東萊府牧場〉(〈지도-10〉)

이 지도는 1663년 許穆이 지은 목장에 관한 지도책 중에 동래부 목장을 그린 지도이다. 《牧場地圖》는 조선 전기에도 있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내용이 散佚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간 목장의 변동이 있었고, 효종의 북벌계획으로 馬政의 새로운 개혁도 필요하여 이 지도의 재정비가 요청되었다. 이로서 현존 또는 폐목장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 목장 지도이다. 첫장에 進獻馬正色圖에 이어 전국의 도별, 군별 목장소재지 지도와 목장 수, 牛馬 필수, 목장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각 도에 산재한 138개의 목장 소재지 지도가 그려져 있다. 목장 소재지는 대부분 섬이나 바다에 돌출된 반도 등지에 위치하고 있다.

《牧場地圖》의 동래부 지도에는 지도 상단에 절영도, 오해야항, 석포 목장의 간단한 설명과, 김해부 목장으로 金丹串, 鳴旨島(廢) 목장에 관한 기록이 있다. 지도의 방위는 남쪽이 위로 향하게 그려져 있고 지

도의 윗부분에 대마도가 나타난다. 석포, 절영도, 오해야항 목장이 표시되고 목장외의 지명으로 동래 읍성·왜관·다대·서평성이 그려져 있다. 부산진은 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섬으로 그려져 있다. 오해야항은 현 대티고개 주변에 그려져 있으며 外城, 中城이 표현되고 있으나 이의 기능은 정확하지 않다. 석포목장에도 동일한 형태의 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말의 관리를 위해 축조된 듯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에 기재된 주기는 다음과 같다.

東萊府 五牧場內設場一處

絶影島 東西十三里 南北七里 主廻四十里 在府南三十里 馬雌雄並一百一匹 牧子 七十三名

吾海也項 周廻 六十里 在府南四十里 本寺設屯

石浦 周廻二十五里 在府南三十里 本寺設屯

3) 〈嶺湖南沿海形便圖〉중 東萊府一帶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이 지도는 〈嶺南沿海形便圖〉와 〈湖南沿海形便圖〉를 합친 수로도로써 영남은 경상북도 寧海에서 河東까지, 湖南은 光陽에서 전라북도 龍安의 용두포까지 방향에 관계없이 직선상으로 그리고 있다. 40면으로 된 이 지도는 첫 면과 마지막 면은 산수화를 그려 지도를 장식하고 있으며, 영남부분과 호남부분은 분리되어 있다. 이 지도는 다음의 〈嶺南沿海形便圖〉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각각 영남부분과 호남 부분의 지도를 만든 후 중앙에서 두 지도를 합쳐 하나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내용은 산천, 도서, 봉화대, 수로, 선소 등을 각각 적당한 채색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연안 각 군·읍 등의 위치, 도서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동래부 연안의 수로는 울주 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장을 거쳐 좌수영앞을 지나 절영도 안쪽으로 이어져 웅천 및 통영으로 이어진다. 수로의 요충지에 대해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해저 형편의 험악하고 순

편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과 폭풍을 만났을 때 대피할 만한 留泊地와 포구의 선박의 대소를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한도, 연안 각 읍간의 里程 및 연안 각지로부터 내륙의 중요한 군읍간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수로도이면서 군사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의 묘사가 지방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 중 가장 정확하다. 각 행정 중심지의 읍치는 사각형으로 묘사되며, 營·鎭은 원으로 표현하였다.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각 읍치와 營·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그려져 있다. 산맥의 표현은 줄기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일관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4) 〈高麗重要處圖〉(一名 〈嶺南沿海形便圖〉)

이 지도는 전북 고창에 살고 있는 姜膺煥의 중손택에 소장된 것인데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1첩(16절 16면)으로 되어 있는 지도로 필사한 기문이 보인다. 작자와 작성 연대는 그가 경상좌수사로 재임할 때(1792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똑같은 것이 전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 동래부 일대의 내용은 〈嶺湖南沿海形便圖〉와 동일하다.

IV. 회화식 지도

1. 역사기록도

부산지역은 임진왜란 초기에 격전지가 되었던 곳으로 이를 회화로 그린 그림이 많이 나타난다. 역사사실을 그리고 있으나 사실 위주로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지역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 일본과의 교류시 사진단에 포함된 화공들에 의해 부산포 일대를 사실적으로 그린 회화지도가 나타난다. 또한 태종대 등 뛰어난 자연 경관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그림도 있어 당시의 경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6〉 역사 기록도

	地 圖 名	年 代	크 기	所 藏 處
1	〈壬辰戰亂圖〉	1834	172×99	규 장 각
2	〈東來府殉節圖〉	1760	145×96	육군박물관
3	忠烈公 宗宅本 〈(東萊府)殉節圖〉	미 상	153×118.5	부산 충렬사
4	〈釜山鎭殉節圖〉	1760년	145×96	육군박물관
5	〈東萊府使接倭使圖〉	18세기후기	82.0×462.0	국립중앙박물관

1) 〈壬辰戰亂圖〉

이 그림은 일본인이 <文祿戰役之圖>라고 하던 것이였었으나 후에 <壬辰倭亂圖>로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시 부산진성과 응봉 및 다대진에 왜군과의 전투장면을 그린 회화도이다. 일본군과 조선군은 白帆과 黃色帆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지도 상부에 1766년 세워진 정공단과 윤공단을 분묘로 그려 놓았으며 각 충렬사에 대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지도의 아래에 그림을 그린 시기와 제작자가 주기로 표현되어 있다. 암남 반도가 길게 묘사되고 그 사이로 다대항과 감천항이 표현되고 영도와 조도도 묘사되어 있다. 부산진성의 윤곽은 부산진 순절도와 유사하여 이를 일부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圖中：萬曆壬辰後二百四十三年甲午(1834)六月 畫師本府軍器監官 李時訥.

2) 〈東來府殉節圖〉

이 그림은 원래 1658년(효종 9) 동래부사 閔鼎重에 의해 제작이 시도된 것으로 그가 신병으로 물러나자 1709년(숙종 35) 동래부사 權以鎭이 화공을 시켜 민부사가 정리해 놓은 사료에 의해 이 동래부 순절

도와 부산진 순절도 두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동래 남문안의 비각 좌우벽에 걸게 하였다. 그 후 그림이 흐려지자 洪名漢 府使가 卞璞으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여 동래 안락서원에 보관하였다가 1963년 육군 군사박물관으로 옮겼다.

치열하였던 전투내용을 한 화폭에 담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부감법을 사용하였다. 그림의 윗부분에는 동래 읍성 북쪽의 운산이 매우 뚜렷하게 그려져 있고, 중앙부에는 성곽과 동서남북의 성문 및 문루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성내에는 산과 언덕, 수목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지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사이에 대소 관아와 민가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문을 중심으로 한 아랫부분은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이고 상반부는 전투의 마지막 단계를 묘사한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중앙에는 객사에서 붉은 조복을 입고 북쪽을 향하여 端坐하고 있는 宋象賢을 중심으로 순절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충정을 기리기 위한 이 그림의 목적이 잘 나타난다. 필치, 형태에서 다소 경직된 면이 보이나 임란 당시 동래 읍성의 내부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남문앞에 약간 높은 둔덕은 농주산을 그린 듯하며, 성내에는 객사를 중심으로 여러 관아들이 그려져 있다. 왜병이 밀려 들어오는 동쪽의 성벽은 현재 인생문이 있는 자리이다.

3) 忠烈公 宗宅本 〈(東萊府)殉節圖〉

이 그림은 충렬공 종택(충청북도 청원군 갑내면)에서 소장하고 있던 순절도로서 충렬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앞의 순절도와 유사하나 묘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충렬사본에는 송부사가 남문 문루뒤에 붉은 조복으로 좌정하고 있으나 본 순절도에서는 남문 문루는 문이 닫혀 있고 송부사로 추측되는 전복 차림의 장수가 문루 동쪽 성벽위에서 성밖을 노려보고 있다. 또한 상반부의 순절

장면도 충렬사본에는 붉은 조복으로 북향 단좌하고 있으나 이 순절도에서는 백색 도포로 남향 단좌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 순절도에는 주요한 인물에 성명이 병기되어 있어 충절을 기리기 위한 기록화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충렬사본에는 인명이 없는 대신 숙종 35년 부사 권이진이 화기를 지어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읍성내의 관아 건물 배치가 변박의 순절도에 비해 뚜렷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충렬사 순절도와 종택본 순절도가 이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그 체제나 그림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흡사한 것으로 보아 양자간에 공통된 원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釜山鎮殉節圖〉

부산진성에서의 전투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동래부 순절도와 같이 변박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동일한 화법을 사용하였다. 古釜山鎮城은 증산아래 둘러싼 주위 약 506m, 높이 약 3.9m의 소규모 해안성이었다. 당시 경상도 해안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진성은 4개 水軍 僉節制使營가운데 제 1의 鎭營이었다. 그리고 부산포 부근에 왜관이 설치된 적도 있어 일본인들이 제한적이지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성의 민호는 300여호에 불과하였고, 병사도 불과 1,000여명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본의 동정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임한 鄭發은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곽을 보수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였고 성은 비교적 견고하였다고 전해진다. 耶蘇會 선교사가 쓴 《日本(西教)史》에서는 해변에서 성에 이르는 사이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말뚝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성벽 주위에는 참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또 《吉野日記》에는 성은 이중 삼중으로 성지를 둘러놓고 또 半弓 등의 무기도 구비하고 있었다고 되어있다. 그림에서 보면 진성의 남문(현재 정공단 자리)앞에까지 왜군이 진격하고 있으며 좌하단부는 전부 왜선으로 묘사하여 전력의 심한 격차를 보이려고 시

도하고 있다. 가운데 黑衣의 갑옷을 입은 이가 鄭撥장군이며 자성대의 모습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다. 이 자성대는 고부산진성에서 동쪽으로 약 1,000m지점, 부산만 북안에 임하여 높이 4.5m~5.4m, 길이 약 2,180m에 달하는 해안성이었다. 甑山은 북문의 뒤쪽에 묘사되어 있다.

5) 〈東萊府使接倭使圖〉

이 그림은 동래부사가 倭使를 접대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을 회화로 표현한 그림이다. 동래 읍성으로부터 초량왜관까지 포구와 어촌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동래 읍성과 초량 왜관 내부의 자세한 묘사를 시도하고 있다. 사신 행렬은 부산 진성으로부터 시작되어 設門을 통과하여 연대청까지 동래부사의 행렬이 표현되고 좌측에는 자세한 왜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화법으로 볼때 鄭歎(1676~1579)이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은 18·19세기 궁중 기록화는 실경 산수와 지도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정선의 화풍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만약 그가 그렸다면 이와 같은 지도를 자세히 그리기 위해서는 동래에 상당기간 머물렀음을 의미하는데 그의 생애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1745년부터 1754년까지의 기간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2. 회 화

1) 〈釜山(槎路勝區)〉

18세기 부산포를 그린 그림으로서 저자와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진 그림이다. 부산 진성과 자성대를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림 중앙에 진성과 자성대를 배치하고 그 주변을 묘사한 것으로 진성 앞 작은 언덕 위에는 큰 수목위에 기와집이 있는 곳이 영가대이다. 일본으로 떠나는 신사는 이곳에서 항해의 안전을 비는 용신제를 지냈다. 영가

대 위쪽의 깎아 지른 산은 자성대, 수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인지 평탄한 정상부는 그려 있지 않다. 왜성의 성벽도 무시되어 있고, 수직으로 쌓아 올린 부산진성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작자인 이성린(1718~1777)은 崔北과 함께 통신 사절단의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잘 그렸다고 전하지만 산수와 인물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일본에 전하며 산수화는 남종화풍을 따랐다.

〈표-7〉 회 화

	회 화 명	年 代	크 기	소 장 처
1	李聖麟作〈釜山(嵗路勝區)〉 ¹⁾	1748	미 상	국립중앙박물관
2	秋岡 李衡燮作〈釜山鎭支城圖〉 ²⁾	1800년대	미 상	미 상
3	〈釜山浦圖〉 ¹⁾	17세기 중엽	미 상	미 상
4	〈倭館圖〉 ¹⁾	1843	90×120(?)	미 상
5	〈朝鮮釜山浦草梁倭館圖〉 ¹⁾	18세기 중엽	58.5×1,003	미 상

※ 출전 1) 부산지방항만청, 1991, 부산항사 2) 부산시동구, 1989, 홍보자료

2) 〈釜山鎭支城圖〉

추강 이형섭에 의해 그려진 부산 진지성의 산수도이다. 이 그림은 회화에 가까우며 자성대의 일출광경을 그린 것으로 경관은 자성대 위주로 표현되어 있다. 자성대에 소나무와 가옥이 그려져 있고 그 뒷부분에 부산진 지성이 묘사되고 있다.

3) 〈釜山浦圖〉

부산포 주변을 회화식으로 묘사하고 지명을 기재하고 있다. 부산진성을 중심으로 왜관이 표시되어 있고,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묘사되어 있

다. 왜관 해안선에는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도의 아래 부분에 표현된 왜관이 초량 왜관인지 두모포 왜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두모포 왜관이라고 한다면 이 지도의 연대는 17세기 중엽의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림의 윗 부분에 황령산으로부터 장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그렸고 오륙도가 표현되어 있다. 아래쪽은 구봉산, 천마산 줄기를 그리고 있다.

4) 〈倭館圖〉

초량왜관의 상세도로서 1843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립을 위하여 지금은 없어진 영선산과 용미산의 모습이 비교적 정확히 나타난다. 용미산 앞에 선창(동서 78間, 남북 122間)이 표현되어 있다. 왜관내에 용두산의 숲을 경계로 동관과 서관이 그려져 있다. 동관은 외교, 무역 실무를 담당하던 일본인들이 머물던 곳이며 서관은 일본 사신들이 머무르던 곳이다. 왜관 주위는 돌담(높이 6척)을 올렸으며, 북쪽에 연대청이 그려져 있다. 연대청 동쪽 해안에 있는 산들은 매립에 사용되어 지금은 없다. 영고개(영선산의 고개길)를 넘어 우리측 衙門인 誠信堂과 通事廳 柔遠館의 일부가, 그림 위쪽 해안에 設門, 안쪽 경사면에 草梁客舍가 그려져 있다. 設門은 1710년(현종 8)에 세워진 것으로 이는 潛商(밀무역)의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설문과 초량왜관 사이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5) 〈朝鮮釜山浦草梁倭館圖〉

부산포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병풍형태의 그림이다. 묘사된 범위는 서쪽의 송도 해안으로부터 동쪽의 부산진성까지 그려져 있으며, 그림의 중심은 초량 왜관이다. 방파제가 석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영도가 원경으로 그려지고 오륙도가 촛대 바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산수도

조선 후기 지도에서의 화풍은 크게 정선 화풍과 민화풍의 산수표현으로 구분되며 이는 제작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정선의 진경 산수 화풍이 당대 화단은 물론 후대의 화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선 화풍이 가미된 그림지도는 도화서 화원들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회화식 지도는 검재 정선이 완성한 진경 산수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선화풍은 지도의 화화적 세련미와 예술적 수준을 높여 놓았으며 이는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록화적 성격의 지도나 지도적 성격의 기록화 혹은 지도인지 감상용 산수화인지 구분이 어려운 전경도 형식의 병풍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정선 일파에 속하는 김윤겸(1711~1755)의 <晉州城圖> 등 많은 양의 격조 높은 장식용 그림들이 남아 있는 편이다.

〈표-8〉 山水圖

	山 水 圖	年 代	크 기	소 장 처
1	金允謙作 〈沒雲臺〉·〈永嘉臺〉·〈太宗臺〉	18세기 중반	28.6×37.1	동아대박물관
2	鄭散作 〈海雲臺〉·〈沒雲臺〉·〈太宗臺〉	18세기 중반	25.8×38.3	간송미술관
3	《慶尙道 名勝圖》 중 〈沒雲臺〉	미상	136×38	규장각
4	〈太宗臺〉	미상	54.0×32.8	중앙박물관
5	〈東萊 太宗臺〉	미상	46.3×34.0	중앙박물관

※ 참고 :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太宗臺〉와 〈東萊 太宗臺〉는 구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였다.

(1) 眞宰 金允謙의 〈沒雲臺〉·〈永嘉臺〉·〈太宗臺〉

김윤겸(1711~1775)은 조선시대 숙종대의 화가로서 본관은 안동, 호는 眞宰이다. 정선의 진경 산수화풍의 영향을 받아 강희언, 김응환과 함께 검재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금강산, 한양근교, 단양, 영남지방 등

의 명승을 여행하면서 진경산수 제작에 몰두하였고, 정선이나 겸재파 화가들의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화풍을 갖추었다. 주로 바다, 바위, 물이 흐르는 계곡을 소재로 선택하였고 실경을 대담하게 생략한 근대적 화면구성이 특징이다. 또한 수목과 담체의 가벼운 표현과 바위의 붓질을 중복하여 입체감을 가미시킨 표현은 서구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그의 물운대, 영가대, 태종대 그림은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물운대는 바다로 힘차게 뻗은 반도로 나타냈으며 그 위에 노승들을 그리고 있다. 바다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물운대는 16세기까지 물운도라는 섬이었으나 그 후 낙동강의 토사의 퇴적작용으로 다대포와 연결되었고,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은 잠겨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름지어졌다.

영가대는 조선시대 일본에 가는 사신들의 출발지점이었다. 영가대 및 선창은 당시 규모가 매우 커 통신사(12회) 일행 470~500명은 6척의 대형선으로 이곳을 떠났으며 쓰시마까지 간 50수차의 間尉官(일행 100명 내외)이 이곳을 이용하였다. 영가대는 또한 지방 관리들의 觀月樓로 이용되어 많은 漢詩를 남겼었다. 그러나 금세기초 일본인들이 이를 허물어 매립에 사용하였으며 이 위를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게 되었다. 그림에서는 부산진성과 영가대를 좌측에 배치하고 우측에 영도를 묘사하였다. 다른 지도와는 달리 영가대 위에 두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다. 부산진성은 남문, 서문, 동문이 뚜렷이 표현되고 안에 관아 건물이 묘사되고 있다. 황령산 등은 원경으로 표현하였다.

태종대의 묘사에서는 암석해안을 부드럽우면서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해식애와 해식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암석사이에서 용틀임치는 듯한 파도는 그림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생도는 원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2) 謙齋 鄭敼의 〈海雲臺〉·〈沒雲臺〉·〈太宗臺〉

우리의 산천을 소재로 하여 그리는 진경산수를 정선(1676~1759)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필묵법으로 화면에 담아내었다. 강한 직선의 수직준법, 대담한 산형의 변형, 굵은 미점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연미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었다. 그는 어느 화가보다 많은 작품을 남겼고, 후대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 실재하는 경치를 사생한 그림을 실경 산수라고 하며 조선 후기에는 실경보다는 '진경'(眞景, 眞境)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다. 진경이란 용어가 후기에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진경 산수가 조선 산수화 양식으로 정형화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선에 의해서이다. 물론 실경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 고려 인종대(1123~1146)의 李寧에 의해 그려졌다고 하나 전해지는 작품이 없어서 어떤 그림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선의 화풍은 화단에 많은 추종자들을 배출하였는데 정선과 화가들로 불리는 이들을 보면 중인 계열작가인 강희언, 김운겸, 정황 등과 도화서 화가들인 최북, 김응환, 김득신, 김석신 등이 있다. 이중 앞에 소개한 眞宰 金允謙(1711~1775)은 정선의 화풍에 따르면 서도 대담한 스케치 풍의 표현, 조감도 형태의 전경도 형식에서 벗어난 구도 등 참신함을 보이고 있다.

이 그림들이 수록된 嶠南名勝帖은 1733년에 정선이 淸河縣監을 지내는데 이때 영남 일대 58곳의 명승고적을 담은 화첩이다. 해운대의 모습은 해안을 중심으로 그리면서 응집력이 뛰어나게 표현되면서 힘찬 필세를 보이고 있다. 물운대의 경우 그림 구성은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형태로 그려졌다. 암석해안이 강조되었고, 오륙도가 오른쪽에 묘사되고 있다. 태종대의 경우 독립된 섬으로 표현하면서 바다의 표현을 해파표를 사용함으로써 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3) 〈慶尙道 名勝圖〉 중 沒雲臺

경상도 명승지로서 海印寺, 矗石樓, 暎湖樓와 함께 沒雲臺가 그려져 있으며 尹必觀의 詩가 기재되어 있다.

V. 맺음말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그려진 지도나 그림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군현지도를 보면 그 내용과 지도 구성 등을 볼 때 이의 제작이 국가적 입장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전통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군현은 중앙에서 바라본 군현, 감영에서 바라본 군현, 군현의 중심에서 바라본 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행정 중심을 축으로 지도가 그려진다. 특히 관아, 객사, 향청 등 공공건물의 배치와 구조를 주변지역보다 상세하게 확대시켜 그리는 반면 주변부는 산천 등으로 처리함으로서 읍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축적이 서로 상이한 다원적인 축적을 적용하여 권력공간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방리의 위치를 관아로부터의 거리를 기록하는 것으로 읍치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읍치의 강조는 군현지도의 제작이 중앙정부와 지방 수령의 통치와 행정 편의를 위해 작성된다는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지도에서 봉수망, 도로 등이 표현되는 것은 중앙집권화 체제의 확립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 정부가 전국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가 교통, 통신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요소는 독립된 부분을 이루기보다는 군사·경제·행정 등 다른 부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글을 맺으면서 동래부를 대상으로 그린 9종의 군현지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해 관련성의 파악을 시도하였다. 전체 공간구성, 산천의 묘사방법, 주기여부, 표현 요소의 방법과 내용, 기제 지명 등을 바탕으로 유형화한 결과 군현지도는 《海東地圖》, 《備邊司地圖》, 《郡縣地方地圖》 등 3계열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유형별 지도의 특징은 〈표 9〉와 같다.

〈표-9〉 동래 군현지도의 유형

지 도 명	산맥	視點	注記	방위	대마도	절영도	수영성
〈《海東地圖》 계열〉							
《海東地圖》 중 〈東萊府〉	∧	三方	여백	×	○	북서-남동	원
《地乘》 중 〈東萊府〉	∧	三方	×	×	○	북서-남동	원
〈《備邊司地圖》 계열〉							
《備邊司地圖》 중 〈東萊府〉	봉	一方	여백	干支	○	동-서	사각형
《嶺南地圖》 중 〈東萊府〉	봉	一方	이면	干支	○	북서-남동	사각형
《各邑地圖》 중 〈東萊府〉	봉	一方	×	干支	○	북서-남동	사각형
《廣輿圖》 중 〈東萊府〉	봉	一方	별지	干支	×	북서-남동	사각형
〈《郡縣地方地圖》 계열〉							
《郡縣地方地圖》 〈東萊府地圖〉	진경	一方	여백	방위	○	진경	타원
〈釜山古地圖〉	진경	一方	×	×	○	진경	타원
〈東萊 釜山古地圖〉	진경	一方	×	×	×	진경	타원

《海東地圖》계열에 포함되는 지도는 《海東地圖》와 《地乘》이 포함된다. 산맥의 표현 방법이 김정호의 《東輿圖》와 유사하여, 산맥은 산들의 흐름을 따라 ∧형 먹선을 단선 혹은 2중이나 3중으로 중복시키면서 연결하고 그 위에 연녹색 담채를 가하는 방식이다. 지도의 공간구성은 관아나 성이 있는 읍치를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면서 상하좌우 각 방향으로 산봉우리를 높히듯이 그리는 開花式 구성방식을 사용하여 공통적으로 3방 시점으로 그리고 있다. 방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대마도가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계열지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영도가 북서-동남방향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표현은 《嶺南地圖》, 《各邑地圖》와 《廣輿圖》에도 나타나고 있다. 수영성의 표현방법에서도 두 지도 모두 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영성 부근에 4개의 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관아 건물을 그려 나란히 표기하

는 것도 동일하다. 지명은 《海東地圖》보다 《地乘》에서 일부 생략되어 있다. 주기는 《海東地圖》에 동일 지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地乘》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地乘》의 묘사 방법이 《海東地圖》에 비해 투박하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地乘》 지도첩은 《海東地圖》가 민간인에 의해 필사되면서 제작된 지도로 생각된다.

두 번째 유형은 《備邊司地圖》 계열로서 《備邊司地圖》, 《嶺南地圖》, 《各邑地圖》, 《廣輿圖》가 이에 해당된다. 산을 이어지는 맥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독립된 형태로 그려 산맥의 흐름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이다. 지도의 공간 구성은 일방 시점으로 동일하다. 방위는 공통적으로 干支(卯酉午子)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대마도는 《廣輿圖》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다. 영도는 《備邊司地圖》의에 전부 북서-동남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嶺南地圖》가 《備邊司地圖》를 모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도의 표현방법이 《海東地圖》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모사과정에서 《海東地圖》를 참조하였음을 시사한다. 수영성의 표현은 공통적으로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4개의 鎭이 건물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海東地圖》의 계열과 동일하다. 봉수망은 《備邊司地圖》와 《嶺南地圖》에서 표현되며 《各邑地圖》와 《廣輿圖》에서는 생략된다. 지명은 거의 동일하나, 향교 표현에서 《備邊司地圖》에서는 성 바깥에 표현되나 《嶺南地圖》에서 성안에 표현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는 1744년(영조 20)년과 1784년(정조 8)의 향교 이전과 관계가 있다. 《廣輿圖》와 《嶺南地圖》와의 지명차이를 보면 대마도가 생략되고 우암이 나타난다. 其大峙가 其火嶺으로, 竹田이 竹山, 竹淵臺가 생략되는 대신 儀相塔이 나타나는 외에 83개의 지명은 동일하다. 주기는 《各邑地圖》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다른 지도에서는 여백이나, 이면 혹은 별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도의 특성을 볼 때 《備邊司地圖》는 《海東地圖》와 함께 참조되어 《嶺南地圖》로 모사되고, 이는 《各邑地圖》와 《廣輿圖》에 의해 다시 모사되면서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유형은 《郡縣地方地圖》 계열이다. 이 지도는 《郡縣地方地圖》와 〈釜山古地圖〉, 〈東萊釜山古地圖〉가 이에 해당된다. 산의 표현은 진경산수를 보는 것처럼 실제의 산 모습과 유사하게 그리면서 이를 맥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체의 지도 공간구성은 하천과 함께 풍수적인 사고로 표현되어 산을 鎭山과 主山으로 나타내고 맥의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일방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다. 음성이 매우 과장되어 이분법적인 축척이 사용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郡縣地方地圖》에만 주기와 방위(東西南北)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영도도 실제의 산의 모습으로 그리나 동서로 표현되어 있다. 수영성은 타원형의 모습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되나 수영성의 진은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郡縣地方地圖》를 바탕으로 9장의 동래부 진영지도가 그려지면서 이후에 〈釜山古地圖〉와 〈東萊釜山古地圖〉가 민간인에 의해 모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 3개의 유형 지도의 내용은 지명을 통해서 볼 때 제작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었다. 산과 섬, 해안지형의 경우 3개 유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나 하천 지명의 경우 《嶺南地圖》에서만 범어천과 모라천이 기재되어 있다. 음성의 경우 《海東地圖》와 《郡縣地方地圖》에서는 관아 건물들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는데 비하여 《嶺南地圖》에서는 읍치(향교 포함)만 표현되어 있다. 면리 표현방법의 경우 《海東地圖》계열에서는 면의 상단, 하단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嶺南地圖》에서는 면이름만 사각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郡縣地方地圖》에서는 里名까지 기재하고 있다. 창고와 장시의 경우 다른 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郡縣地方地圖》 계열에서만 매우 상세하게 나타난다.

부산지역의 고지도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 결과, 고지도가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의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화의 시작이 지역의 역사적 공간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부산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고지도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지도를 통

해 삶의 공간에 대한 역사성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이 옛지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서적〉

- 김기혁, 2000, <지역연구를 위한 부산지역 고지도 기초 연구> 《부산지리》 9, 부산대 지리교육과.
- 김두일, 1992, <輿圖鄙地에서 경위도 일도의 거리> 《지리학》 46, 21-28, 대한지리학회.
- 김두일, 1994, <大東輿地圖의 도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29(1).
- 김상수, 1989, <大東輿地圖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보》 8, 한국지적학회.
- 박관섭, 1980, <도법계보면에서 본 大東輿地圖의 분석> 《지리학회지》 1, 16-24 한국지도학회.
- 박인호, 1997 < 대동지지와 방여총지에 나타난 김정호의 역사지리 인식>, 《한국학보》 89, 일지사.
- 배우성, 1996, <고지도들을 통해 본 18세기 북방정책> 《규장각》 18, 규장각.
- 배우성, 1997, <고지도들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세계인식>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 양보경, 1995, <海東地圖 해제>, 《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 양보경, 1998, <大東輿地圖>, 《한국사시민강좌》 23, 일조각.

- 양보경, 1992, 18세기 <備邊司地圖의 고찰-규장각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15.
- 양보경, 1995,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16.
- 원경렬, 1991, <大東輿地圖 : 현대지도학적인 고찰> 《지리학》44, 151-163, 대한지리학회
- 윤용혁, 1989, <조선조 공주고지도 5종의 비교분석-공주지방 문화유적의 탐색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18.19. 공주사범대학
- 이 찬, 1992, <海東諸國記의 일본 및 유구국 지도> 《문화역사지리》 4, 1- 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이 찬, 1995, <한국의 고지도>, 《문화역사지리》 7, 5-1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이 찬, 양보경, 1994, <서울 고지도 집성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학연구》 3.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모악실학회총서, 혜안
- 이상태, 1993, <조선시대 제작된 서울 고지도 연구,> 《향토서울》 53.
- 이상태, 1998, <고지도를 이용한 18~19세기 서울 모습의 재현,>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서울학연구소.
- 全映雨, 1968, <葆華閣所藏의 小華輿圖> 《考古美術》 9(1), 통권 90호, 365-366.
- 정길자, 2000, <송상현 공 종가소장 東萊府殉節圖 연구> 《대학발전 연구논문집》 20집, 부산경상대학.
- 최영희, 1976, <정선의 동래부사 접왜사도> 《고고미술》 129, 130합호, 서울: 한국미술사학회,
- 한상복, 1991, <서울 고지도 비교연구> 《향토서울》 50,
- 한영우, 안휘준, 양보경, 1995, <고지도와 한국문화> 《문화역사지리》

7, 39-6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許善道, 1998, 〈壬亂劈頭 東萊(釜山)에서의 여러 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上) : 「釜山鎭殉節圖」, 「東萊府殉節圖」 및 「釜山鎭·多大鎭殉節圖」를 中心으로〉 《한국학논총》1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허영환, 1988, 〈서울고지도고〉 《향토서울》4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지도집〉

경북대 출판부, 1998, 《東興備攷》, 경북대 출판부.

김정호, 1992, 《全南의 옛地圖》 향토문화진흥원.

서울대학교 규장각(영인), 《朝鮮後期 地方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영인), 《海東地圖》.

영남대박물관, 《韓國의 옛地圖》 영남대 출판부.

이 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이 찬·양보경, 1995, 《서울의 옛地圖》 서울학연구소.

허영환, 1989, 《서울의 古地圖》 삼성출판사.

허영환, 1994, 《定都 600年 서울 地圖》, 범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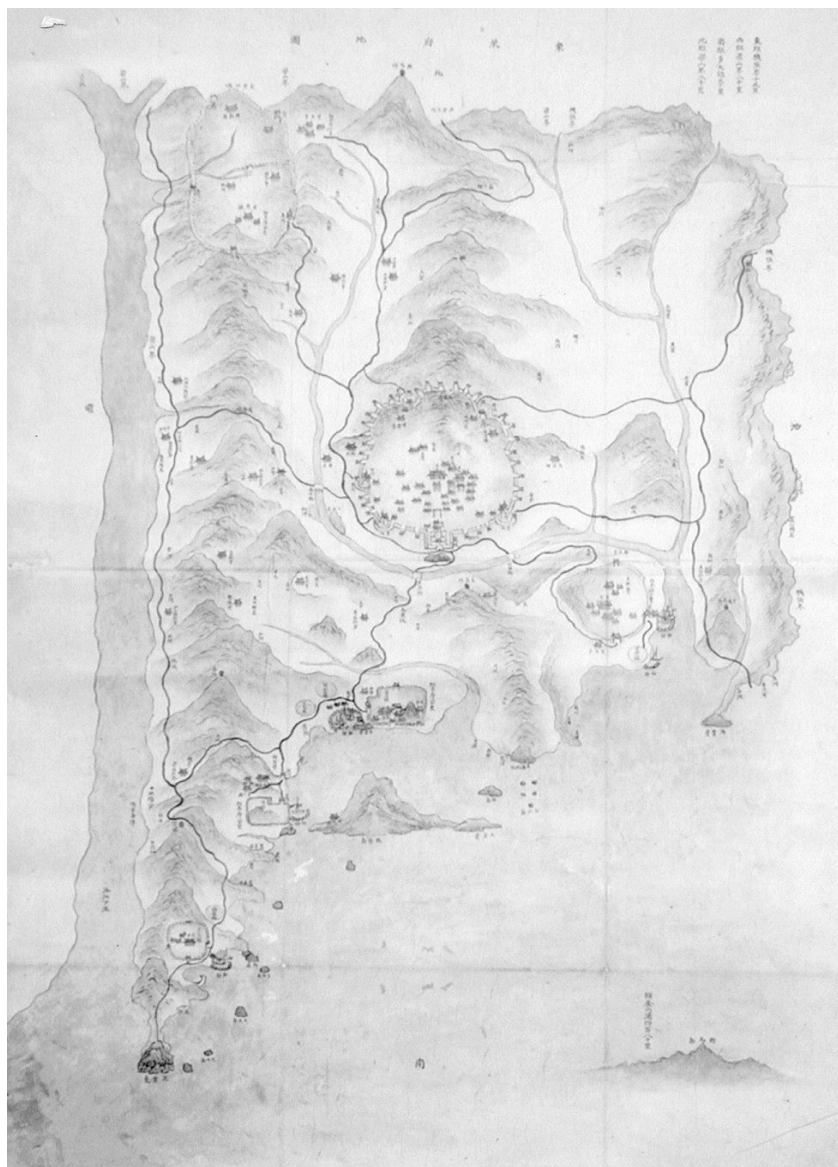
허우궁·허재진, 2000, 《한국의 지도-과거·현재·미래》 대한지리학회·국립지리원.



〈지도-1〉《海東地圖(18세기)》 중 〈東萊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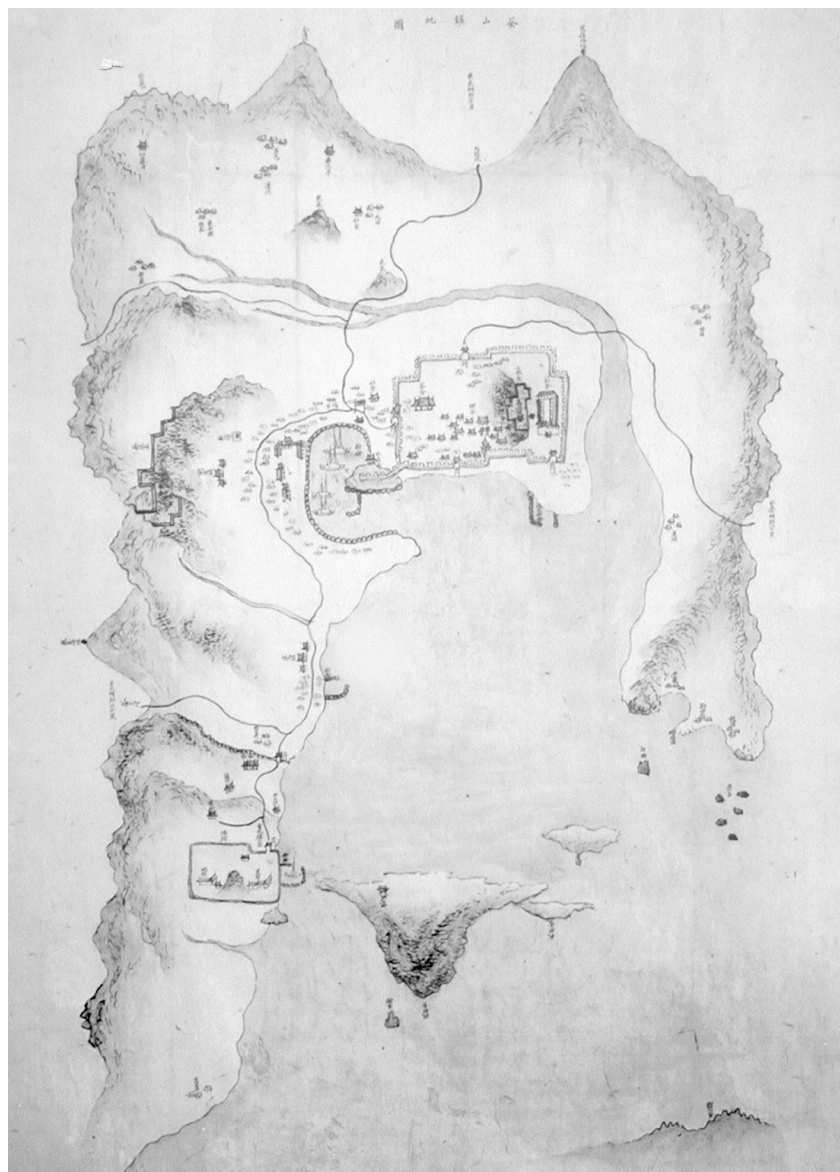
〈지도-2〉《嶺南地圖(18세기)》중〈東萊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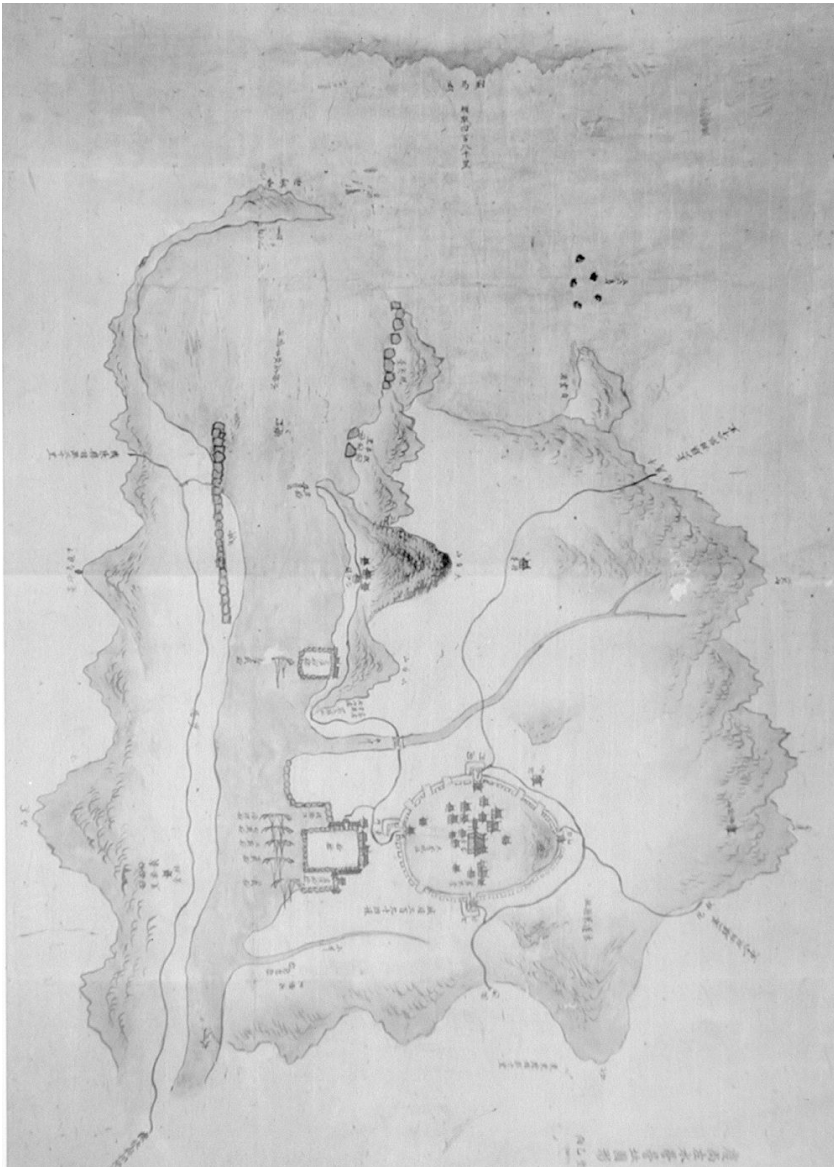
〈지도-3〉《郡縣地方地圖(1872)》 중 〈東萊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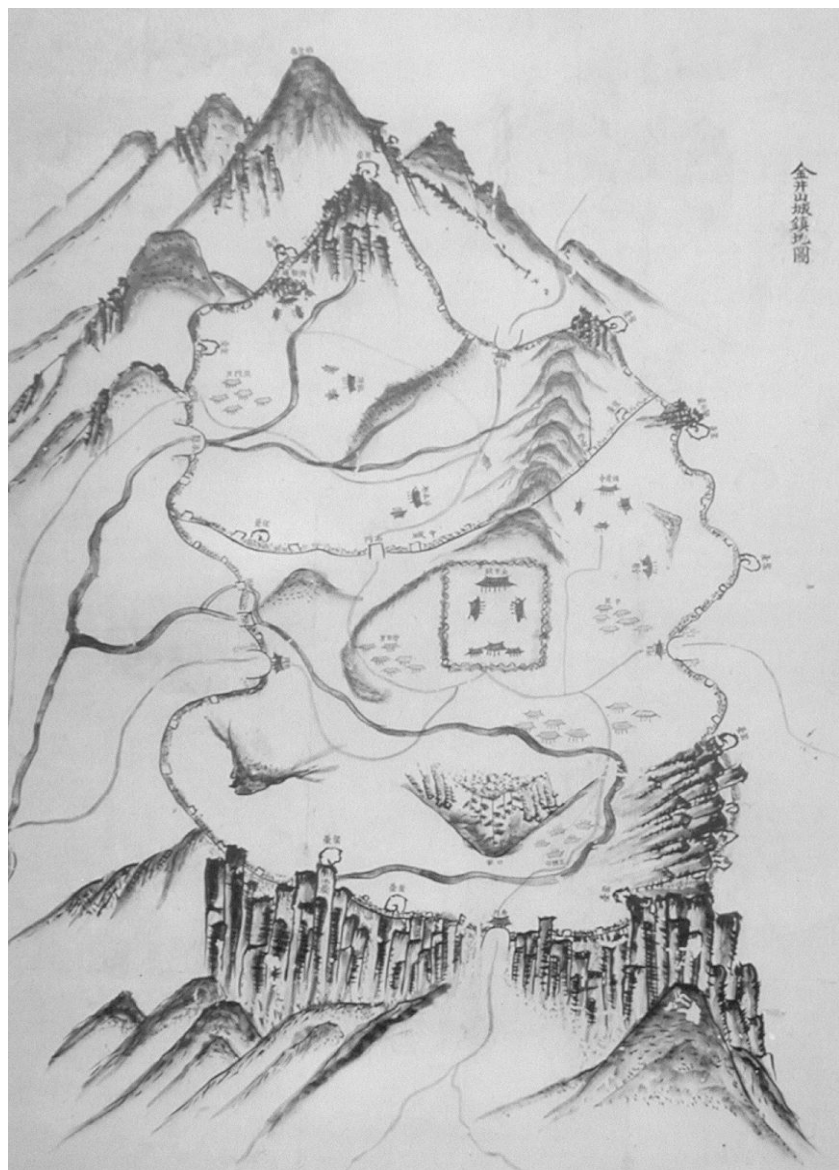
〈지도-4〉 《郡縣地方地圖(1872)》 중 〈機張縣〉



〈지도-5〉《郡縣地方地圖(1872)》 중 〈釜山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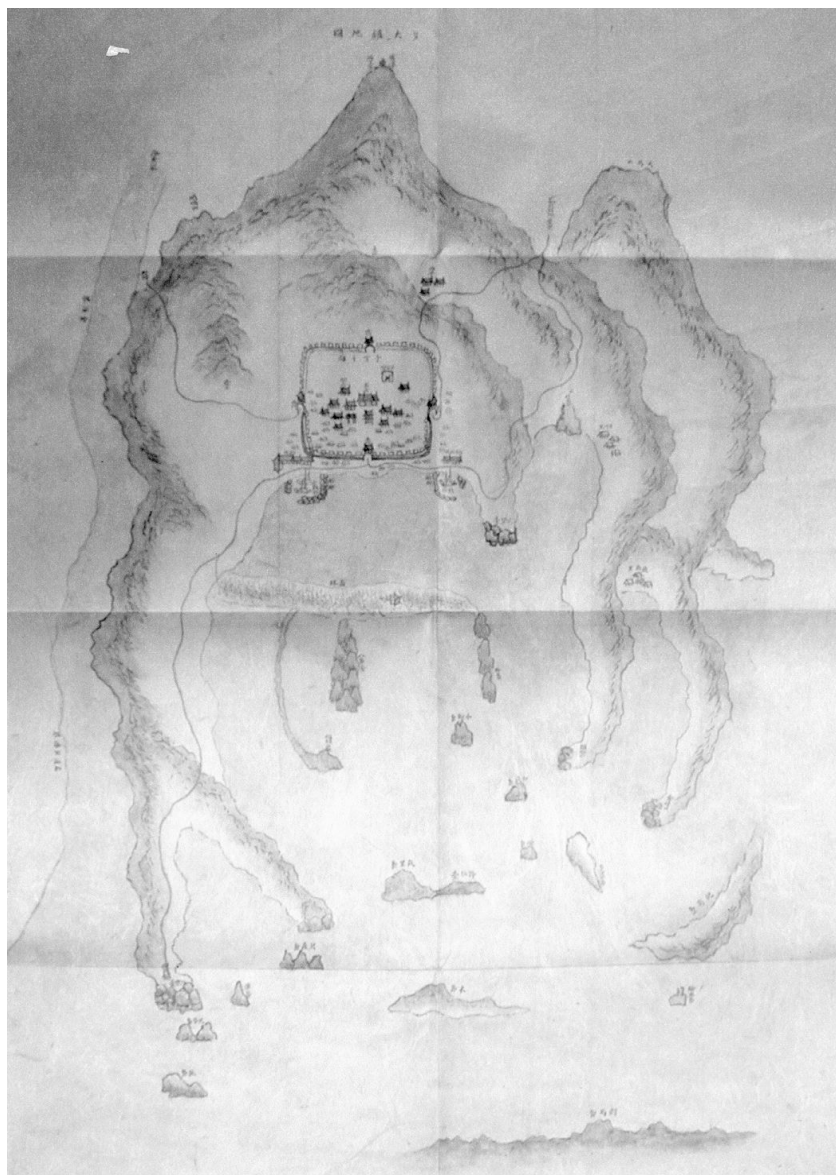
〈지도-6〉 《郡縣地方地圖(1872)》 중 〈慶尙左水營 營址圖形〉



〈지도-7〉《郡縣地方地圖(1872)》 중 〈金井山城鎮〉



〈지도-8〉 《郡縣地方地圖(1872)》 중 〈加德鎮〉



〈지도-9〉《郡縣地方地圖(1872)》중 〈多大鎮〉



〈지도-10〉 《牧場地圖(1663)》 중 〈東萊府〉